

第215回國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0月16日(月)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 다. 국정홍보처소관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 다. 국정홍보처소관
3. 1999회계연도공공기금결산보고
 -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다. 문화산업진흥기금

審査된案件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가. 문화관광부소관 1
 - 나. 문화재청소관 1
 - 다. 국정홍보처소관 49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 가. 문화관광부소관 1
 - 나. 문화재청소관 1
 - 다. 국정홍보처소관 49
3. 1999회계연도공공기금결산보고 1
 -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다. 문화산업진흥기금

(12시02분 개의)

○委員長 崔在昇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국회 정기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 다. 국정홍보처소관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 다. 국정홍보처소관
 3. 1999회계연도공공기금결산보고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다. 문화산업진흥기금

○ **委員長 崔在昇**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 문화관광부소관 문화재청소관 국정홍보처소관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 문화관광부소관 문화재청소관 국정홍보처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공공기금결산보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예정된 국무회의에 문화관광부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차관이 위원회 회의에 조금 늦게 출석하게 됨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 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증인채택의건입니다. 이것은 두 간사위원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중에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정해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의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국정홍보처 결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공공기금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문화관광부장관 金한길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단히 의논드리면서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南景弼委員** 장관님 잠깐만요! 결산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장관님이 오늘 처음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하고는 평상시 잘 알고 지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장관님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난번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선대위원회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성명을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 시절에 장관님께서 하셨던 성명이나 대변인실에서 나

왔던 성명들이 어떤 경우에 명백한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돈 많은 부자 정당이니까 이제 그만 두어야 된단든지, 한나라당은 부도덕한 부자 정당이다, 또한 국부유출의 진범은 한나라당이다 또 3월 10일 현재 891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가 4월 4일 830포인트로 떨어진 것들은 한나라당이 경제불안을 자초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없는 논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또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말씀인지? 그 외에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의무를 매수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최근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돈 공천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라, 한나라당은 사회불안 조성 책동을 하고 있다, 돈 공천으로 불로소득 많이 챙겼다고 지갑 자랑하려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본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조사해 보았더니 개개 의원들에 대한 성명들이 많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에 대해 당시 대변인이 직접 하셨던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장관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 일일이 기억하십니까?

○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 **南景弼委員**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말 문화적인 분이 와서 문화정책을 다루셔야 될 분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아까 읽어 드렸던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총선 때 대변인의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沈載權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南景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런 말씀 또 이런 데에 관한 어떤 질의응답이 지금 위원회에서 의제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난번 총선 와중에서 치열한

양당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 차원에서까지 양당 간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대변인 논평 기타 본회의 발언 등등에서 많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는 본 위원회에서의 의제로서보다는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적절한 위치에서 법적 또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지,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신임장관에게 그런 문제 제기 또는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바로 본 의제대로 회의가 진행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南景弼委員 우리 沈載權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바로 드려도 되겠지요?

물론 우리 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분이 장관으로 오셨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런 문제되는 논평들을 내셨고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들을 내셨던 분이 우리 문화관광부의 장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첫 자리입니다. 과연 과거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그러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이야기였는지 또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적당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최소한 듣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金한길 당시 대변인께서 지금 우리 장관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위원회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어떤 케이스는 직접 대변인 명의로 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부의 또 문화관광위원회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辛基南委員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南景弼委員 제 이야기 끝내고 하시지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구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사례를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장관께서 과거의 논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辛基南委員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다니까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崔在昇 여기도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하십시오.

○辛基南委員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거나 정당원으로서 있을 때 행동하는 언행의 기준하고 또 장관, 행정관료로서의 기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다른 신분에서 했던 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리가 아까 沈載權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는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간단하게 언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감이라든지 또 야당간사로서……

그런데 마치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하듯이 그것을 질의의 주제로 삼아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벗어난 게 아니냐?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셔도 한계 내에서 해야지, 그걸 직접적으로 질의하고 응답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범위를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나도 한 마디 합시다.

세 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南景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간단히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결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문제가 만약 또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면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의사진행에 존경하는 南 위원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南景弼委員 예,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 사례 하나 하나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아마 장관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상당히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총선기획단장과 겸해서 제가 다섯 가지 직을 겸임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선대위 대변인을 겸직했던 기간은 보름 동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논평과 성명이 있었습니

다.

우리 정치문화에서 고쳐져야 할 점이 뭐냐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대변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이고 말이 오가는 사이에 또 감정이 섞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라고 하면 대변인제가 지금과 같이 독설과 과장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우리 南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장관, 인사말과 보고를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鎮碩委員** 장관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데, 저는 자민련 소속 鄭鎮碩 위원입니다.

장관님! 업무보고 듣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장관님도 이제 의원생활을 해 보셔서 가지고 잘 알겠습니까마는 상임위의 국감 관련자료들을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金한길 장관 취임 이후로 기억됩니다마는 제가 7월 4일날 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까지의 문화관광부장관·차관·차관보의 업무추진비 관련내역을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누차, 여러 번 전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각 현재까지 아직 자료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4시까지 鄭鎮碩 위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챙겨 보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그건 장관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 기획관리실장!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는 걸 제대로 신속하게 안 보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鄭鎮碩 위원님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오늘 4시까지 꼭 보내 드리도록 하세요.

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潤委員** 자료요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부가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감은 자료가 제대로 와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

니다. 자료를 안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감을 제대로 안 받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요. 몇 위원에게만 제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위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수차 독촉해도 안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관께서 꼭 챙기셔서 가지고 전 위원들에게 요구한 자료를 빨리 주도록 독촉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崔在昇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문화관광부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종교 및 언론, 행정 등 다양한 우리 부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체육진흥, 건강한 청소년문화의 창달 그리고 건전한 언론문화의 정착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관광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전 직원은 99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결과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문화예술계 숙원사업인 정부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1%를 확보해서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성숙된 한·일 협력관계를 위하여 일본대중문화를 3차에 걸쳐서 개방하고 한·일 문화교류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등 문화교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둘째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를 구현하고자 생활권 중심의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과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고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법의 전면 개정, 대중예술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세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폐교를 활용한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 대중음악 공연장 건립 등 예술창작 및 발표를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유망 전업작가 창작활동 지원 등 순수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문화원 및 문화학교 활동 지원,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및 문화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넷째로 문화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등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개인종합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저변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상품의 제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방송 선진화를 위한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했고 건전 언론문화 정착과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섯째, 관광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진흥5개년계획인 관광비전21을 확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대 조성, 관광서비스 체계의 개선, 관광자원의 개발 및 투자 촉진,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확정·추진하고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APEC 관광장관회의 유치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섯째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생활체육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으로 국민 1인당 하나의 스포츠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위선양을 위한 전략종목의 집중육성 등 엘리트 체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시드니올림픽에 대비하여 경기력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해 왔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한국청소년중앙공원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과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고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한 1999년도 결산개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예산현액 66억 4,500만 원에 수납액은 138억 9,000만 원으로 72억 4,500만 원을 초과 수납했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액 8,754억 300만 원을 전년도 이월액 159억 4,200만 원, 예비비 102억 2,400만 원, 수입대체경비 4억6,7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체액 988억 200만 원을 뺀 8,032억 3,400만 원이 예산현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7,868억 3,500만 원을 집행했고 98억 2,900만 원은 2000년도로 이월했으며 65억 7,1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6억 8,600만원 중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자료구입을 위해서 60억 원,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26억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문화관광부 결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順珪 차관은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李弘錫 차관보입니다.

朴文錫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順吉 중무실장입니다.

吳志哲 문화정책국장입니다.

盧太燮 예술국장입니다.

林炳秀 문화산업국장입니다.

- 朴良雨 관광국장입니다.
- 裴鍾信 체육국장입니다.
- 鄭鎭宇 청소년국장입니다.
- 李敦淙 감사관입니다.
- 徐成甲 예술원 사무국장입니다.
- 李康淑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 池健吉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 沈在箕 국립국어연구원장입니다.
- 尹熙昌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 金明坤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 吳光洙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 尹美容 국립국악원장입니다.
- 金俊榮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에는 주요 산하단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鄭夢準·李衍澤 위원장입니다.

- 朴維澈 독립기념관장입니다.
- 金正鈺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 李種奭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입니다.
- 柳吉村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崔鐘律 예술의전당 사장입니다.
- 金洙容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尹亮重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鄭鴻澤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장입니다.
- 李惠星 한국청소년상담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9년도 문화관광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 분 앞에 놓아 드린 99년도 문화관광부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이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시간 절약과 보고의 효율화를 위해서 골자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보고방법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의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을 아끼고 위원님들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주요 핵심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는 방법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비비, 소관별 주요사업 실적,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의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93억 5,300만 원이었으나 99년 5월 24일 문화재청과 국정홍보처의 신설로 인해서 양 기관에 27억 700만 원이 이체되어 세입 예산현액은 66억 4,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8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6억 4,600만 원보다 72억 4,500여만 원이 더 수납되었는바 이는 주로 기타 경상이전수입 52억 8,200만 원, 수입대체경비수입 7억 5,100만 원, 재산수입 4억 3,400만 원이 기타 입장료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당초 예산 15억 5,600만 원 중 3억 2,400만 원이 문화재청으로 이체되어 예산현액이 12억 3,200만 원이고 18억 8,800만 원이 수납되어 6억 5,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 원인은 주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탁이자가 4억 1,800만 원 증가된 부분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낙찰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이전수입은 당초 예산액의 25억 8,600만 원 중 8억 900만 원이 문화재청으로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17억 700만 원이나 54억 3,4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원인은 국고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증가 52억 8,100만 원분과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1,200만 원 등의 부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이 예산현액 16억 2,2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초과수납된 것은 국립중앙극장 주차료수입 1억 9,500만 원 등이 증가했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예산현액 대비 5,600만 원 감소한 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우수학생 선발에 따른 입학생 감소와 휴학생 및 장학생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당초 예산은 34억 2,600만 원이었으나 문화재청으로 12억 6,600만 원과 국정홍보처로 1억 4,500만 원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20억 1,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6,500만 원인바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응시생 증가에 따른 원서대 증가 2억 9,500만 원분과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유료입장객 증가로 인한 입장료수입 4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관유물매각대 1,500만 원이 수납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문화

재관리국의 국유재산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재산평가차액을 환수한 것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45억 1,300만 원이었으며 이중 138억 9,000만 원을 수납하고 6억 2,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문예진흥법 등에 의한 문예진흥기금 등 위반과태료 체납액 6,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미납분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의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8,754억 3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9억 4,200만 원, 예비비 102억 2,400만 원, 전용증감 각 145억 8,500만 원, 이용증감 각 38억 4,100만 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재청과 국정홍보처로의 이체감액 988억 200만 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4개 기관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액 4억 6,700만 원이 예산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8,032억 3,400만 원이었으며 예산현액 중 7,686억 3,4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97.9%의 지출 집행실적을 기록하였고, 98억 2,900만 원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비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신축공사 등 7개 사업비로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인 65억 7,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리한 예산의 프로포션은 전 예산 대비 0.8%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전용, 이용, 이체, 2000년도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02억 2,400만 원 중 10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관광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등의 재해복구비로 21억 900만 원 새천년맞이사업비 58억 9,100만 원 등 일반경비로 80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관별 주요사업실적을 소관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중무실 소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교 간 화합행사 개최 지원 등 건전 종교문화 육성사업에 6억 100만 원, 고려대장경 자료조사 정비 등 민족문화 보존 계승을 위해 17억 6,300만 원, 남북 범종교인 세미나 개최 지원 등……

○南景弼委員 잠깐만요.

이 유인물이 기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는 이 정도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南景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千浩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전문위원입니다.

1999회계연도 문화관광부소관 결산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세출결산 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사고이월 문제에 있어서 이월액은 98억 2,870만 원으로서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이월액 207억 6,781만 원보다는 이월규모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보수공사 사업비 중 이월액 10억 2,020만 원은 건물안전진단 실시결과 건물안전상 문제점을 조속히 보수·보강하여 건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물구조보강 및 보수, 공조배관과 설비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등 기계설비 보수, 그리고 조명제어 및 CCTV설치 등 전기설비 보수를 위한 것이었으나 본관 구조보강공사 중에 기둥 주위 구조체의 심한 균열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재실시한 결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따른 공기부족으

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서고동 신축건립공사 사업비 중 이월액 1억 5,876만 원은 당초의부마감재를 가평석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가평석 산지의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로 가평석을 포천석으로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자재반입 기간 등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에서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관서장은 편의성이 강한 사고이월비로 예산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독립원칙과 단년도예산주의원칙에 따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99년도 전용액은 당초 예산액의 1.7%인 145억 8,500만 원으로 98년도 전용액 66억 8,110만 원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정부 전체의 전용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전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족액 35억 8,052만 원, 공공요금 부족액 8,659만 원,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부족액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96억 4,773만 원, 중앙도서관보존서고동 건축설비 책임감리 용역비 부족액 등 사업량 증가로 12억 340만 원, 직제 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2,172만 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교사 건립종합기계설 감리비 부족액 4,504만 원 등입니다.

이러한 전용 사례 중에는 새로운 비목을 전용으로 신설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큰 규모로 전용 증액한 경우, 당초 예산을 전액 전용 감액한 경우, 당초 예산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의 전용재원에 충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예산 운용행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비록 예산관련법령에서 예산집행의 신중성을 위하여 허용하는 행정과목이라고 하여도 전용한 재원으로 비목을 신설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전용을 통한 확정예산 변경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용 감액되는 비목의 본래 사업목적에도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전용사례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의 연례적인 전용문제입니다.

인건비의 전용액은 48억 3,600만 원으로서 98년도의 전용액 30억 4,305만 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소속기관별로 보면 본부 9억 3,900만 원, 한국예술종합학교 9억 1,200만 원, 국립중앙박물관 6억 2,800만 원, 국립중앙도서관 4억 600만 원, 국립국어연구원 2억 3,300만 원, 국립민속박물관 1억 700만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관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임에도 이러한 경비가 부족하게 편성되어 매년 전용 증당하는 불합리한 예산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개발비 과다 전용문제입니다.

국립중앙극장은 99예산 총액 중 하반기 6개월분은 민간위탁 용역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국립중앙극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의 연구개발비 83억 3,157만 원 전액을 전용 집행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중앙 및 9개 지방박물관의 청소 및 매·수표업무 민간위탁 계획이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6억 8,264만 원 중 94.9%인 6억 4,754만 원을 동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 감액 집행하였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연구개발비는 재외동포생활문화연구조사, 한민족생활문화학술연구, 민속자료구입, 전산운영 등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중 재외동포 생활문화 연구 조사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전시실 설명패널 및 4개 국어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당초 예산액 7,313만 원 중 53.3%인 3,900만 원을 전용 감액 집행하였고, 99년 3월 27일 신설된 새천년준비위원회는 예비비를 재원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성, 평화·환경·새 인간·지식창조·역사의 5대 천년화 사업을 연구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대토론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토론회를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면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43.3%인 6,500만 원을 전용 감액 집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각 세항 및 각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전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발전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정책에 환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그동안 연구개발비 집행 행태를 보면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과목을 존치시키거나 증액계상한 후 잔액 또는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전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부족한 결과이므로 향후 연구개발비 계상에 있어서는 철저한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감리비 부족액의 전용문제입니다.

99년도의 건설공사사업 중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동 건립공사 감리비 부족액,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공사 감리비 부족액, 예술종합학교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액 등을 전용 충당하였습니다.

건설공사사업의 감리비는 97년도부터 매년 책정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9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감리업이 부가사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른 부족액과 미책정액 일부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소요 발생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필수적인 감리비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책정 시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감리비 부족재원을 주로 시설비에서 전용하고 있으나 시설비를 전용감액하는 것은 부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한국예술종합학교 시간강사 수당 과다 전용문제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99년도 수당예산액은 11억 4,969만 원이었으나 예산액 대비 69.4%인 7억 9,787만 원을 전용 증액한 예산현액은 19억 4,756만 원으로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8.0%인 19억 816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0%인 3,9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 7억 9,787만 원은 시간강사, 시간제 객원교수 강사료 7억 4,987만 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4,800만 원이며 이중 시간강사 및 시간제 객원교수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동 강사료의 부족분 전용액은 당초 예산액 7억 7,057만 원 대비 9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수정원의 미달운영과 학생수 증가 및 전문사과정 개설로 인한 시간강사들의 소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강사료의 부족분 충당액이 당초 예산액 규모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예산운용으로서 시간강사 등의 활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교수정원의 결원운영 및 시간강사의 과다 활용문제를 포함한 현행 교원 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개선하여 합리적인 학사운영 및 예산집행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조성사업 설계 변경문제입니다.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40억 8,300만 원의 계속사업으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4대 요소인 수련거리 개발, 수련터전 확충, 지도자 양성, 청소년단체 육성 등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연구·개발·지원할 수 있는 중앙전문기관을 설립·입주시키고, 청소년의 국가관 배양 수련활동을 실시할 터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99년도의 사업비는 149억 2,500만 원으로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와 부대설비 및 기계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 연건평 1만 1,769평을 1만 37평으로 축소, 단체동 및 직원숙소 등의 건물 건립을 취소하는 설계변경비를 동 세향 시설비에서 1억 6,900만 원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의 수용과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정책 반영 및 투자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고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 **崔龍圭委員**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각 위원실에 배부해서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 **沈揆詰委員** 이번 국회가 16대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각 사무실별로 위원 형편에 따라서 검토를 했겠습니까마는 시간관계상 검토를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국회의원도 있는 만큼 업무과약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세세한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委員長 崔在昇** 沈揆詰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생략해도 되겠지만 沈 위원 등 초선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번은 정확히 보고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받아 들어서 수석전문위원은 여기에서도 요약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도록 하지요.

계속하세요.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33쪽의 이용 및 이체에 관하여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쪽 불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에 관해서도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3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은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출판관련 정보교류 및 전시, 출판연수 등 복합적인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상 부지매입비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등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되, 건립비는 국고로 충당하기로 하고 '98년도에 설계비 5억 2,100만 원, '99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억 원이 각각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건립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또 동 센터의 건립·운영주체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초 예산인 설계비를 민간자본보조금 비목으로 전용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립규모 축소·총 사업비·국고지원액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98년도 설계비 5억 2,100만 원과 '99년도 민간자본보조금 20억 원 전액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은 민간이 건립하는 시설에 국고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주체의 자금이 50% 이상 되어야 하고 건립 후 운영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예산당국의 입장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확보의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신규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산당국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의 타당성, 재원 조달 방안, 건립시행 주체 및 완공 후 운영주체, 운영수지의 독립채산 가능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결산검토 시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 및 대책강구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노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예산확보 후해결방안 모색보다는

먼저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칠성산호국수련시설 건립사업은 강원도에서 강릉무장공비 침투지역인 칠성산 지역에 호국수련시설을 건립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려던 계속사업으로서 '99년도 사업지원비 10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비 미확보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의 결과 사업추진 부적정 판결 및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고지원 명분 취약으로 예산이 미배정되어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련시설을 건립하려면 투자의 효율성, 즉 이용 실수요, 사업의 효과성, 거리적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의 미흡과 예산당국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므로 무차별적인 사업지원 승인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00년 상징기념물 조성사업은 2000년대 문화비전을 제시하고 새 천년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각오를 다져 선진문화국가 진입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징기념물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상징기념물 조성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취소 원인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새 천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사사업 및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2000년 상징기념물 조성사업비는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경쟁적으로 새 천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한민족축전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과 첨단게임제작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취소로 인한 불용문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몇 가지 기타 사업의 결산상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진흥위원회의 퇴직금차입 부적절 문제입니다.

'99년도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액은 총 43억 7,600만 원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운영 지원비 11억 2,600만 원, 애니메이션지원센터 건립비 15억 5,000만 원, 영상체험교육센터 건립조성지원비 17억 원이며 또한 문예진흥기금에서 100억 원이 영화진흥금고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퇴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에서 23억 6,000만 원을 5년간 무이자로 차입하였습니다.

퇴직금 차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협의 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은행차입 과다를 이유로 영화진흥금고 차입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진흥금고 차입 후 문화관광부에서는 영화진흥금고 과실금 차입을 조건으로 협의 승인했다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금고차입 협의 당시 금고과실금이 약 12억 원에 불과하므로 차입금 규모에 미달하여 금고과실금 차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직원을 징계처분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미적립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퇴직금을 매년 일정률씩 정기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으로서 연도가 누적될수록 향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므로 조속한 개선조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영화진흥법 제35조 위반 문제입니다.

영화진흥법 제35조에서는 영화진흥금고의 설치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리·운영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진흥금고관리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경상경비를 차입한 것은 영화진흥법 제35조의 목적외 사용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관광부의 지휘·감독 부적정 문제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승인된 예산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지휘·감독 및 협의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적극적인 지도와 협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진흥금고 위원 구성의 동일성 문제입니다.

영화진흥금고는 영화진흥법 제33조에서 독립적인 회계를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사안을 처리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및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영화진흥금고 운영소위원이 동일인으로 구성·중복되고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리 처리되어야 할 사안을 결국은 동일인이 2개의 독립된 기구를 대표하여 당초에 의도한 대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동법 취지에 모순되고 있으므로 각각 분리·독립 구성하여 책임성과 독자성이 보장된 기구로 운영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사업 추진의 부진에 관하여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46쪽 IMF 관련사업 즉 공공근로사업의 실적 저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우선 47쪽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예산액은 400억 원으로 이중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자·출자 및 보조사업비로 59.9%인 239억 6,2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0.1%인 160억 3,800만 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IMF 체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으로 관광관련 고학력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원사업비는 IMF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여 추진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치밀한 사업추진계획 미흡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의 59.9%만이 추진되고 나머지 40.1%가 기금으로 편입된 것은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서 이는 당초 사업목적에 왜곡시킨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종합영상자료 DB구축사업의 중복 문제와 실직 언론인 고용지원사업 내용의 부적절 문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그다음에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사업 추진의 부적절 문제도 구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천년 맞이 행사 관련 사업의 계획성 부족을 지적코자 합니다.

새 천년 맞이 행사 사업 예산액은 당초 18억 원이었으나 예비비 76억 956만 원을 합한 94억 956만 원으로 이중 90.1%인 84억 7,752만 원이 지출되고 9.9%인 9억 3,205만 원이 불용 및 반환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면 문화비전 2000 사업인 본예산 18억 원 중 새 즈른해의 약속 등에 9억 7,702만 원, 동 세향 예비비 58억 9,190만 원 중 새 천년 맞이 행사 등에 58억 3,639만 원, 새천년준비위원회의 17억 1,766만 원 중 새 천년 맞이 국민통합 축제분위기 조성 등에 16억 6,411만 원 등입니다.

동 사업은 전 국민이 하나로 이어져 지난 천년을 정리하고 새 천년의 새로운 희망을 정립하며 우리 민족이 새 천년에 세계사 속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뒤늦게나마 새천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새 천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종합·조정·통제·주도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업추진 과정이나 사업의 내용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 천년 맞이 행사는 사전에 예견된 도래가 확실한 행사로서 당초 본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9년 3월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비가 예비비로 추가 편성되어 중복추진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예산사업 외에 사업추진 주체를 달리 하는 새로운 예비비 편성 등의 사업추진 난맥상은 사업계획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한 데 기인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산 당국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 천년 맞이 관련사업은 본예산사업인 문화비전 2000 사업과 동 세향의 예비비 사업 및 새천년준비위원회 사업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비전 2000사업 중 2000년 상징기념물 건립사업비 등은 중복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며 한민족 멀티미디어축제 사업비는 새 천년 맞이

행사 지원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새천년준비위원회는 99년 3월 27일 발족하여 약 2년간 활동 예정인 한시적 조직이나 총 사업비 17억 1,766만 원의 58.8%인 10억 924만 원이 홈페이지 제작 등 경상적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되고 급하게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새천년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가 여의치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언론들은 새천년준비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락성, 일회성 행사에 지나치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 행사의 내용도 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연예인들을 위한 방송용 대형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항상 틀에 박힌 듯한 공연행사를 지양하고 보다 창의적인 공연이 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 맞이 사업 중 '천년의 문' 건립은 파리의 에펠탑 같은 장기적인 관광상품이면서 밀레니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정부예산 지원 이외에도 국민의 지지가 절실한 만큼 이제라도 동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문화산업진흥기금 결산,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구두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沈揆喆委員 청소년중앙공원은 어디에 짓고 있는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독립기념관 바로 옆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시에 시간이 허용되면 거기도 잠깐 시찰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廳長 徐廷培 문화재청장 徐廷培입니다.

존경하는 崔在昇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문화재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문화재청이 발족된 첫해로서 과거 문화재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듬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나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추진과제로 삼고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였으며 관련사업 시행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9년도는 문화재시책과 업무개선을 위해서 문화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단위문화재별로 증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자원의 기반이 되는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멸실되어 가는 천연기념물의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오랫동안의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왔던 문제들을 과감히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서 오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정착시켜 나갈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관리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문화재행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사업들은 지난 1년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의 문화재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焱 문화재기획국장입니다.

李勝奎 문화유산국장입니다.

趙由典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입니다.

金秉模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1999년도 문화재청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결산개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문화재청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4,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4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억 8,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재산수입 2억 2,500만 원, 경상이전 수입 16억 5,800만 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억 6,700만 원, 수입대체경비 1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문화재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16억 7,7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854억 2,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0억 4,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6억 7,700만 원으로서 문화관광부소관 이체액이 834억 6,000만 원과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가 82억 1,700만 원으로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용액은 11억 9,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부족액 2억 7,500만 원, 신설된 복리후생비 부족액 4억 9,800만 원, 기타 한국전통문화학교 감리비 등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용액 8,600만 원의 내역은 현충사관리소 인건비 부족분 총당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4,400만 원의 내역은 동절기 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44억 300만 원,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3억 2,400만 원, 기타 3억 1,700만 원입니다.

불용액 12억 2,000만 원의 내역은 긴급발굴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이 1억 원, 비정규직 채용 억제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2,100만 원,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4억 6,000만 원, 기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6억 3,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82억 1,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경비 41억 2,600만 원, 재해대책비 부족액 23억 6,700만 원, 봉급부족액 1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6억 2,700만 원으로 문화재청 개청에 따른 경비 2억 400만 원, 중요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23억 9,600만 원, 문화재 재해복구비 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총당액은 16억 6,100만 원입니다.

이월액 15억은 경북공 근정전 보수공사비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온 것입니다. 불용액 9,000만 원의 내역은 인건비 등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문화재청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하여 업무수행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千浩仙**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문화재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는 청 승격 이전의 문화관광부소관 결산을 포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계상의 적정성 문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문제, 관람객 입장료 수입감소 등 문제점이 몇 가지 있으나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므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세출결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다한 사고이월에 관한 줄속집행의 우려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의 방만한 운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99년부터 총액계상사업으로 전환된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1999년도부터 총액계상예산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액 920억 4,100만 원이 총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각 지원대상의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국회에서는 그 총액만을 확정하고 세부 사업내역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대상사업의 심사 및 선정, 지원시기, 사후관리·감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사과정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심사체계 및 구체적 기준과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정비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건수는 99년도의 경우 1,235건에 달하고 있는데 전문성, 중립성이 보장된 심사팀 등의 구성 없이 대상문화재별로 해당 과에서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예산 배분기준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을 뿐 훼손의 심각성, 보수의 긴급성 정도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의 표준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과학적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훼손실태에 대한 정례적·체계적 조사가 평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커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인력 부족으로 문화재 훼손 여부가 적시에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자료만으로는 예산 지원여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지원심사 시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건수는 전체 1,235건 중 186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여 심사의 정확성 여부가 의문시됩니다.

또한 문화재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등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의 조치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 객관적 자료 확보 노력과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등 심사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훼손이 심각한 문화재일수록 보수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계상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의 선정이 늦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비 확보도 지연되어 보수공사의 시작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보수·정비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의 선정·통보 및 집행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업에 있어서의 사후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한 번 잘못될 경우 시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유자나 관리자의

임의 보수 등으로 문화재 보수가 오히려 훼손을 가져오는 데 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은 보조금은 예산계획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보조금의 사용 과정에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기본계획에 따라 94년부터 추진되어 온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충남 부여군 100만 평 부지에 옛 백제의 모습을 재현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역사재현촌과 연구교육촌으로 이루어지는데 역사재현촌에는 백제인의 생활모습을 재현한 7개 기능촌을, 연구교육촌에는 예술인촌, 호텔 및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4,528억 원이 투입될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1,466억 원과 지방비 1,350억 원에 민간자본 1,712억 원을 유치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이중 국비 부분은 문화재청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여 1999년도의 경우 문화재청 예산 중 50억 원이 동 사업에 지원되어 백제민속박물관 건립 및 7개 기능촌 기반조성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국고지원을 문화재청에서 맡은 것은 심도 깊은 백제사 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백제유산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는 동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문화재청의 법령상 직무와 정확한 고증에 따른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라는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맡는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이유 이외에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백제사의 정확한 복원 가능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백제유산은 백제 멸망 이후 1,300여 년 동안 방치되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것이 많고 잔존하는 유적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는 백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복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백제문화유산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적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나 그 자체를 문화재로 보거나 동 사업을 문화재복원사업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동 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백제사의 복원이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역사적 고증 없이 복원을 빌미로 문화재 훼손 및 역사 왜곡을 부추길 수 있는 측면까지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 복원 문제는 한 국가의 사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역사 재현이 최대한 원형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되 문화재복원사업이 아닌 관광사업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在昇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委員長 崔在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국회법과 선례에 따라 일문일답과 일괄질의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15분 동안 질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申星一 위원 말씀하십시오.

○姜申星一委員 대구 동구의 姜申星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보면 자그만치 15명의 위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5분 동안 하게 되면 한밤을 새더라도 얘기를 다 못 하게 됩니다. 4시부터는 국정홍보처의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합니다. 15분으로 되어 있지만 5분으로 제한해서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在昇 위원님들 5분으로 지켜 주시고 5분 이상 필요하신 분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되도록 5분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委員 高興吉입니다.

오늘 결산심의 첫 발언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문광부 산하 여러 기관장들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지금 5분 발언 말씀까지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제가 한 20년 국회 출입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으레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들 하고 거의 다루지 않는데 사실상 결산이 제대로 되어야 국정감사라든가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것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일정으로만 보더라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3개 기관인데 사실 내일 모레 이들은 저희가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부처씩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결산을 하루에 다 해치우고 그것도 5분 발언으로 하자라는 것이 물론 그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행정부에 대해서 좋은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게 오히려 더 구실을 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래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가 무슨 5분 발언으로 그치자, 어떤 결의를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렇고 특히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협조하는 차원에서 짚막하게 발언들을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이것을 위원회 결의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나 지적해 드리고 아까 장관께서 저희 당 南景弼 간사께서 지난 대변인시절의 여러 성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하여간 그에 앞서 장관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다만 문제는 야당의 간사위원 발언이라는 것은 간사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대개 야당 위원들 전체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대표발언의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南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대변인제도, 우리나라 대변인이 어떻다는 일반론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출석하신 것이고 또 야당 위원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제가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당의 의견이고 또 선거본부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스무드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 너무 답변이 기계적이고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상임위를 진행해 가면서 장관하고 위원들 간에 어떤 신뢰라든가 존경이 쌓여야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이렇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한번 제가 지적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어요.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난 것인데 ‘문예진흥기금 31억 원을 문화관광부가 문예진흥원에 주지를 았다,’ 이것은 저희가 언론에 미리 준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문예진흥법 28조에 따라서 기금 미납자에 대해서 99년도에 약 4억 3,800만 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했는데 당해연도에 899만 원밖에 징수 안해서 약 2.1%의 징수율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태료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이 관람자로부터 모금한 문예진흥기금 31억 원을 아직까지도 진흥원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횡령에 해당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씩의 고액미납자가 이미 45명이나 되고 이들이 형

사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광부가 어떻게 앞으로 징수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횡령하는 것을 방치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국립도서관 본관 보수공사 이월과 안전문제가 아까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인명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99년 9월에 국립도서관에서 보수공사를 착수했는데 여기에 심한 균열이 발견되었는데도 설계변경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10억 원 이상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드롭패널이라고 해 가지고 이 패널이 도서관 건물 내에서 D등급으로까지 부실한 곳이 지적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사실 삼풍백화점 폭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0명씩 출입하는 도서관에서 사용제한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사고라도 났다면 큰 인명 살상이 생기지 않았었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립도서관장의 해명과 더불어 현재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간의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언론에도 조금 보도되었습시다마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3억 원을 불법 차입해서 퇴직금으로 취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퇴직금을 영화금고에서 불법인출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이것을 지휘감독하는 문광부의 잘못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이고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사무국장 등 7명을 징계처분하고 사무국장 같은 일부 직원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광부 자체에서도 지휘감독을 잘못된 책임을 물어 가지고 담당자를 문책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한 국민체육기금 1,900억 편법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委員 李美卿 위원입니다.

金한길 장관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저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의하고 또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이라든지 너무 이벤트성에 치우친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고 또 아직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새천년위원회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상당한 부분을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새천년사업에 쓰인 예산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상징기념물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문제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민족멀티미디어축제사업 예산에 1억 7,299만 원이 새천년맞이행사지원사업비로 변경해서 집행이 되었고 또 한시적인 기구, 새천년위원회의 경상비로만 10억 92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만 무려 10억 924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는 게 아직 못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10억짜리 홈페이지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키모 아이누족 같은 무문자 부족 등에게 한글보급을 위한 연구사업에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각 민족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런 데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굉장히 기막힌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밖에 연예인들의 대형쇼와 몇몇 그야말로 깜짝쇼 등으로 꾸며진 새천년맞이자정행사에만 47억 6,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아주 낭비적인 예산의 집행 이런 것 굉장히 큰 문제고 특히 새천년맞이다 하는 것은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등이 이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면서 새천년의 뜻이 살려질 수 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그러한 사업들을 꾸려 나가는 정신이 반영된 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이런 새천년맞이행사라는 것이 얼마나 문화관광부의 또 우리의 문화정책의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혹시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천년의문건립사업이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천년의 문이 난지도 평화공원에 조성될 예정인데 천년의 문은 설계공모 당시에도 표절시비에 걸려 있어서 이것 역시 문제입니다.

또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5월에 2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사업의 총예산은 500억 원인데 국고지원은 20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 충당계획이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것을 2002년까지 하려고 할 때 국고가 다시 지원할 것인가 지금도 국가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국민의 성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 기금이 출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이 외에도 100년에 걸쳐서 12개의 문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고의 낭비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월드컵 숙박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방안의 하나로 일반관광호텔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브호텔이 문제인데 현재 일반관광호텔로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과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따라오면서 숙박시설을 맞출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가 예측한 월드컵 숙박시설이 총 14만 실입니다. 현재 관광호텔 객실수가 4만 5,000실로 아직도 9만 5,000실이 부족합니다. 문화부의 일반관광호텔 지정실적은 2000년 7월 말 현재로 278개 업소에 8,895 호실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월드컵을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있지마는 99년 사업실패 이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 나올 때 기존 숙박업소의 일반호텔 전환을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까지 주어졌던 어떤 혜택을 가지고는 일반호텔의 관광호텔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지금 러브호텔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와 있는데 이 기회에 오히려 그야말로 좀 파격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지금쯤 찾아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홈스테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동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진척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적인 예산지원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고요.

그냥 한 가지만 꼭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연간 1,200건이 넘는 지자체의 신청을 연말에 다 받아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를 할 때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제 질의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접수하고 연간 심사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고요.

(崔在昇 위원장, 崔龍圭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질의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에 대한 일상적인 문화재 관리점검과 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초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龍圭 예, 李美卿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 줄여주시느라고 애써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申榮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均委員 먼저 金한길 장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우리 高興吉 위원도 지적했고 우리 李美卿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영화진흥금고에서 퇴직금을 5년간 무이자로 차입을 했다, 이것은 엄연히 35조에 위배된다고 이렇

게 高興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흥 위원회가 되기 전에 진흥공사 시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을 많이 퇴직시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진흥공사 때 진흥금고에서 모자라는 퇴직금을 보충하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윤일봉 사장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퇴직금을 다 주고 진흥공사에서 편집실을 이용한다든지 녹음실을 이용한다든지 세트장 이용대금을 받아 가지고 은행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왜 진흥위원회에서 굳이 금고에서 법을 위배 하면서 퇴직금을 썼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문화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걸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도 아시면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흥위원회와 진흥금고를 운영하는 위원이 아마 동일한 인물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고의 위원은 엄연히 분리돼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까 李美卿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숙박시설 지원으로 해서 133억 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9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여관·모텔의 중저가 호텔 전환사업이 단 2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숙박시설 개·보수 자금지원도 1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유도사업도 작년 8월 제도 도입 후에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에서 개·보수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저리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의 25%에서 50%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9,500실이나 부족한 호텔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상설공연장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 관광공연장업 시설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써 기금에서 60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60억 원도 전액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235건에 달하고 있는데 훼손의 심각성이라든지 보수에 긴급성에 대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신청건수 중에서 15%인 186건만 실태조사를 하였을 뿐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자료만으로 무려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돈을 예산 배정할 적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구개발비 29억 원 중에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물 구입비와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공사 감리비 그리고 심지어는 난방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또 학술지표 조사 예산을 국제학술대회 개최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매년 문화재청의 연구개발비가 너무나 적다고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배정된 연구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龍圭 申榮均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부의 결산보고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화도 문화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도중에 자꾸만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미리 다른 방도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鄭範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範九委員 새천년민주당 鄭範九 위원입니다.

먼저 金한길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99년도 사업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정책의 기초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李

美卿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시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우리 사업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콘텐츠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99년도 사업 결산을 하면서도 하게 됩니다.

李美卿 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시다라는 그 대표적인 것이 새천년준비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천년의문건립사업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알맹이 없는 골조만을 세우는 데 우리 문화정책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데요. 예를 들면 천년의문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새천년준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아마 그 목적은 새 천년의 정신이 무엇인지 새 천년이 안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또 겨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라는 것이 아마 새천년준비위원회에 부과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콘텐츠 부분에 주력하기보다는 문 만들고 심하게 말을 하면 쇼 몇 번 하는 것으로 새천년준비위원회 행사가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콘텐츠 중심의 문화관광정책으로 정책방향이 잡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이런 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 쪽으로 사업방향이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99년도에 사용한 예산내역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띕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각 부서별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쉽게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지적을 드리면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파트의 연구개발비로 배정된 것 중에서 1억 3,130만 원, 전체 문화정책관련 연구개발비의 10.4%가 수당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연구개발비의 2.8%인 1억 5,000만 원 상당도 기본급이나 수당, 복리후생비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시다라는 인건비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가장 먼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연구개발비에서 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을 문화관광정책에서 별로 중요

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구개발비 항목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구개발비의 전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전용되는 경우는 역시 새천년준비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새천년준비위원회에 배정된 연구개발비 중에서 43%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이 관서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전용하는 것이 일상화된다고 한다면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콘텐츠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연구개발비의 전용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문화재청에도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 99년 연구개발비 총액이 29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10%에 해당하는 9.5% 상당의 2억 7,800만 원을 전용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유물구입비로 1억 원 등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유물구입비 같은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계상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유물구입비로 전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용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각종 기금들의 전용 또는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은 매번 여러 차례 지적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로서는 오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문제입니다. 올해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99년도 기금운용평가서를 보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종합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업운영부문에서는 D등급을 받았는데요. D등급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평균 이하, 낙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이 99년 9월에 신설되어서 운용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타 유사한 기금들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갖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서에서 보면 총평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정부예산이나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이런 타 기금과의 중복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기획예산처는 장기적으로 유사

한 민간금고들 예를 들면 영화진흥금고나 방송진흥기금, 출판금고와 같은 이런 민간금고들을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통합·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99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데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광진흥을 위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일 텐데 이 기금에서 나간 사업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시·도 관광안내지도 개선이나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화장실 개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이런 기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일반회계에서 먼저 지출해야 되는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에 99년도에 청소년지원사업 비용이 그 전년인 98년도에 비해서 100.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의 4분의 3인 75.25%가 국제청소년센터건립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청소년센터건립비는 원래 97년부터 국고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으니까 만만한 기금 쪽으로 자금을 대체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龍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申星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申星一委員 한나라당의 姜申星一 위원입니다. 대체로 앞서 우리 질의하신 분하고 저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먼저 영진위의 퇴직금 차입이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高興吉 위원하고 申榮均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어떠한 처리를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듭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申榮均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영

화진흥위원회의 조직표에 보면 소위원회 내지는 협의조정회의체가 있는데 기능상으로 봐서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가 있고 또 영화진흥금고운영소위원회가 있어서 기능면으로 봐서 상대적입니다. 서로 어떤 면에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해야 되고 어떤 면에 보아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될 소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구성으로 보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관께서 확실히 챙겨주시시오.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에 김승범이라는 위원이 있고 김홍준, 이용배, 이연호라는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화진흥금고운영소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위원은 김승범, 김홍준, 이용배, 이연호 같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봐서 절대로 무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원활하게 진흥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문제도 鄭範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라는 제 질의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李美卿 위원과 또 申榮均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관광공연극장 창업지원사업 이런 문제도 제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연구원의 우리 沈 원장님 나와 계시죠?

○國立國語研究院長 沈在箕 예.

○姜申星一委員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셨지요? 발간만 해 놓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얼마를 들여 가지고 발간하셨지요?

○國立國語研究院長 沈在箕 총 100억입니다.

○姜申星一委員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간해 놓고 그것이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보급이 안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보급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조기유학이니 또 영어교육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라는 제가 볼 때 저는 외국어 실력이 없습니다라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국어실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국어를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한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을 해 놓고도 전혀 보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을 못 하는 문제점과 앞으로 보급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 지켰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龍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沈載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權委員 沈載權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가지 아주 잘 검토를 해 주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잘 물어 주셨고 또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두 가지 문제를 가볍게 질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볼 때 세입 계상에 있어서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실질적인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반에 불과한 첫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 지적처럼 아마 세입 계상에 있어서 어떻게 매사를 다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확한 세입 계상이 있을 때 그 위에서 올바른 예산 계획이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광부 본부에 보자면 과태료 부분, 벌금, 몰수금 징수에 있어서 대단히 미진합니다. 이 건 과세정의 실현도 그렇고 엄정한 국정집행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계상 잘못된 건 우리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인데 더욱이 문화재청 보고서를 읽으면서 속상한 부분은 불용액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액수는 보고하신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안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문화재청 업무를 생각할 때 때로는 국가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발굴비용이라든지 또는 유물보존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주어진 예산마저 많은 부분 불용액으로 넘겨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많은 사업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말씀 드리하고자 합

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 그야말로 국가적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 발전모습, 문화를 세계에 드높일 기회이고 따라서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까 문광부의 지난 1년 사업보고에서도 월드컵지원사업을 하나로 꼽으리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감준비 중에 놀라운 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신임장관님은 월드컵조직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못하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沈載權委員 신임 월드컵조직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안 계시는데요. 못 들어가 보았을 것입니다.

○沈載權委員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공식 홈페이지 홍보기능의 중요성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월드컵 홈페이지는 엉터리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하다가 차츰 읽어어나가는 중에 ‘이것이 적단체가 해킹이라도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어떻게 이런 홈페이지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홍보할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슬회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는 외부세력의 침략·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일관되어 왔다, 현대사는 전쟁과 군부독재 그리고 대량 학살과 전직 대통령 처벌,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과 같이 지극히 부정적인 서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가 5월 31일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월드컵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방문이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봄 사 오월은 아름다울 수도 있으나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몰릴 때이므로 중급 및 고급 숙박시설은 예약하기 힘들다. 그런가 하면 초여름철은 무덥고 북적거리고 비가 많이 오니 언제라도 태풍이 불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계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관광여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IA기관원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입장료가 할인된다, 하루 50달러로 숙식은 물

론 야간유흥과 기념품 구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경일로 백중, 중구…… 저는 중구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설명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같은 페이지 내에서 광주를 표기하는데 GWANGJU 이렇게도 되고 KWANGJU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오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위 규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龍圭 沈載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一濶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이나 金 위원님의 양해에 따라서 玄敬大 위원님이 질의 하시겠습니다.

○玄敬大委員 우선 영화진흥금고 퇴직금 차용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문화관광부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영화진흥법시행령 규정을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안은 그 전해에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또 예산내용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퇴직금으로 적립한 돈이 모자라서 일시에 23억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 가지고 지출했다고 하면 예산안의 변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광부에 돈을 빌려서 퇴직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예산안 변경내용에 관한 승인신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광부가 이 내용에 관해서 승인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승인하셨다고 하면 이것이 합법하다고 판단해서 승인한 것인가, 아마 영화진흥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문광부가 승인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승인했나 안 했나, 승인해주었으면 왜 승인해 주었는가, 합법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벌금, 몰수금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 과태료, 벌금, 몰수금에 대해서 세입으로 계상 안 하고 있지요? 이것은 명백히 예산회계법상 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다음해에는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는데 왜 세입에 처음부터 계상 안 하는가, 안 했을 때 기획예산처에서 전혀 지적이 없었는가 이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龍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沈揆喆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揆喆委員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보조금의 지역편중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99년도 관광지 개발보조금 교부금액은 215억 4,1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금 총액 215억 4,100만 원 중에 강원도가 가장 많은 40억 300만 원, 경상남도 38억 1,900만 원, 충청남도 28억 2,300만 원, 전라남도 26억 2,700만 원 순으로 4개도의 교부금액이 132억 7,200만 원으로 되어서 전체 보조금액의 61.6%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하위인 경기도가 4억 8,400만 원, 충청북도가 16억 3,300만 원으로 이 지역의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향은 2000년도 예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관광지개발보조교부금 지원을 보면 총 307억 1,400만 원 중 강원도 62억 5,800만 원, 충청남도 60억 9,700만 원, 전라북도 38억 3,600만 원, 전라남도 34억 9,500만 원으로 4개도의 교부금이 64.2%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면 경기, 충청북도는 각각 8억 7,200만 원, 18억 2,700만 원으로 두 지역을 합해도 8.9%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광지 국고지원 기준 중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편중 보조되지 않도록 한다는 지원 규정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지원규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

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崔龍圭 간사, 崔在昇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관광지개발보조금 교부가 과연 보조할만한 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 지원대상 사업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분야는 나름대로 예산 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천년맞이 행사관련하여 상당한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새 천년이라는 상징성 있는 해를 맞아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사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를 해서 다소 예산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IMF를 겪고 있고 금년도만 해도 상당액의 국채를 발행했고 내년도도 3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적자예산 상황에서 상징적인 행사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은 북한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도 못사는데 북한을 도와줄 돈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못사는 판에 북한을 도울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징성 행사에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千浩仙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4,528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제역사에 대해서 백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어땠는지 과학적으로 고증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백제의 옛 모습을 재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혹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이것이 백제입니다.’ 하고 보여줄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이 사업이 4,52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2005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좀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증되지 않은 백제 모습을 모조품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백제입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고증된 백제의 모습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백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백제입니다.’ 하고 고증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증되지 않은 백제라면 그것은 문화재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이 문화재청의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제역사가 지금 고증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청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국감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沈揆喆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辛基南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南委員 인건비, 연구개발비 전용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전용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선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 특히 문화재청에서 연구개발비 전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서면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심사기준이나 심사 절차 같은 것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여기서 이삼분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결산하는 마당인데 조금 논제 외의 말이 아닌가 우려하면서도 여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한글날을 국경일

로 지정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인데 저희 문화관광위원회로 의견제시 요청이 와서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 원래 90년도까지는 공휴일이었지요. 91년도 盧泰愚 대통령 정부 때 이것을 공휴일에서 삭제했습니다.

말을 들어 보니까, 李漢東 총리한테 말을 들었는데요. 추석을 3일 연휴로 하면서 노는 날이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한글날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리고 세계 각국에도 이런 기념일이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외국에 그런 기념일이 없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런 위대한 문화유산, 그런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문자고 이러한 문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갖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세계적인 문화 창조력을 우리가 스스로 과시한 것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념일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한글은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영국의 언어학자 샘슨도 한글은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했고 유네스코에서도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고 세계 문맹퇴치를 위해서 공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 '킹 세종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념해야 할 세계 언어학계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문화계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저는 이것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국경일로 정해야 한다, 지금 국경일이 3·1절, 개천절, 제헌절, 광복절 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쉬니 마니, 노동생산성이 어찌니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국경일로 정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습

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우리 위원회에게 의견제청이 왔는데요. 우리 문화위 위원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밀어서 16대 국회 벽두에, 21세기 벽두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부심을 주는 이런 대 문화적인 사건을 우리가 문화위원회에서 기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고 문화부장관도 문화부 차원에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의견을 피력하실 것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존경하는 辛基南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식으로 의안으로 상정해서 대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위원님들께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柄國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委員**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께서나 鄭範九 위원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한 사항이지만 문화관광부의 전반적인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국가 전체예산의 1%를 넘은 문화관광부 예산을 세워서 많은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환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대로 이 예산이 이벤트성, 일회성에 많이 치우친 감이 있었고 순수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증가를 하고 하는 부분은 별로 찾아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확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불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직 전체 예산의 1%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순수 문화예술 분야별 증감액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안)까지 비교해서 국감 이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실이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숙박시설의 확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 문화관광부의 朴智元 전 장관의 보고 과정에서 숙박단지를 설치하느니 하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사업비 133억을 전액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숙박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지난 대통령께 보고되었던 숙박시설 확보대책안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연구비를 전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연구비라고 하면 연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의 기초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94.9%를 전용한 예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로 봐서 과연 우리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의 연구비 중에 지표조사관련 예산항목을 보면 지표조사관련예산이라고 하면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조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책정되지 않은 이 예산조차도 문화재청 홍보 VTR을 제작을 하는 데 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운용된 상황을 보면 용자사업 위주로 운용이 되었고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직접투자사업에는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반에 이 기금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난 첫해에는 그렇게 운용되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비교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올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그것도 역

시 마찬가지로 국감 이전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鎭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鎭碩委員 鄭鎭碩**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金한길 신임 장관님은 저하고는 과거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예산운용의 방만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우리 장관님이 향후에 업무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신념이랄까, 철학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智元 전임 장관의 경우와 金한길 신임 장관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모두 대변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긴밀하게 일을 한 입장에 계셨기 때문에 또 지금 문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언론이 큰 분야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계서는 9월 21일 취임하시면서 국민의 권리를 예외없이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를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부담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국민의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국민의 권리 가운데서도 자칫 무시되기 쉬운 권리가 바로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부수립 이후에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 정부로서 교과서적인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지금까지 金大中 대통령 임기의 반을 넘기면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또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기자 출신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방송사, 신문사 견습기자들조차도 지금 朴智元 전임 장관이 또 현정부가 우리나라의 방송사, 언론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언론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많은 정치부 기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과연 우리 언론이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습니까만 중앙일보에 대한 외압 사례라든가 또 청와대 출입기자의 출입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소위 민주주의의 이념을 숭고한 가치로 존중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정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에 언론 주무장관으로서 金한길 장관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취임사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일하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매우 주목합니다.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어서도 안 됩니다. 朴智元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金한길 장관께서도 그동안 언론을 상대하고 기자들을 상대하는 일에 많이 관여해 오셨던 입장에서 향후에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정책, 언론정책이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과거에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관여하고 간섭했던 일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양되어야 된다, 지양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문제에 대한 또 언론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고한 철학과 소신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尹鐵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鐵相委員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朴鍾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雄委員 해마다 결산심사를 할 때 보면 상

당히 요식행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쓴 돈이니까 따져 봐야 소용도 없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장관이 쓴 부분이다 하는 그런 면피성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산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지적되는 문제들이 계속 다시 또 지적이 됩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이라든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임 장관도 국회를 존중하려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 그동안 장관 되기 전에 청와대에도 상당기간 근무를 했고 요직에도 있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면서 나는 오늘 아침에 인사를 했던 말이에요.

엊그제 전국체전에서 잠깐 만났지만 체전에서 처음 보고 그래서 내가 장관보고 체전에서 그랬잖아요. 장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인사도 한번 안 오느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장관은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국회의 권위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노력해야 될 그런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 수백명 만났고 인사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관 인사 못 받아서 인사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장관 취임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 인사도 안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인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장관, 몰라서 인사를 안 왔습니까, 바빠서 안 왔습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안 온 것입니까?

지금 답변 좀 해보세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야말로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朴鍾雄委員 그러면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인사하는 것보다도 더, 더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인사

할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고요.

여러 번 연락도 올렸고 시간을 맞추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갑자기 바뀐 이후에
사실 그동안 국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안
계셨습니다. 시간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朴鍾雄委員**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朴鍾雄 위원님의
말씀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국회의원
출신 장관답게 국회의원님들을 국민의 대표로 알
고 그 말씀들이 국민들의 소리인 것으로 알고 도
입부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말씀들을 경청하겠
고 부단히 의논 드리면서 또 같이 책임지면서 그
렇게 우리 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朴鍾雄委員** 역대 문화관광부장관이 너무 정치
적인 인사들이 많이 온다, 전임 장관도 마찬가지입
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문화
예술계에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럴수록 더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되고 더 노력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적합하다고 생각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전문성이 모자라는 부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빨리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겸손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야말로 더 겸손하게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것은 배우면서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朴鍾雄委員**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
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최근에 현안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남북
한 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장단을 인솔했다고
그됩니다. 같이 가서 金正日 위원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지적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신
문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환하는 닷새
만에 또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남

북한 간에 신문을 교류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북한 측에서 한국 측
신문을 검열하겠다는 또 감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
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
시고 또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환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중단이 된 것이 어떤 이
유인지 그리고 또 재개된다는데 언제 어떤 재개가
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우리 부의 관계자들에게 얘
기를 들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朴鍾雄委員** 이 얘기에 대해서 장관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아직 보고를 못 받
았습니다.

○**朴鍾雄委員** 못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가 누구입니까?

지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질의이니깐 간
단하게 하세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문화관광부 문
화산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
공식적으로 표현은 사장단을 인솔한 것이 아니고
동행으로 표현했구요. 그리고 모시고 가는 입장에
로 저희들이 계속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신문을 교류하자는 얘
기가 먼저 북측의 국방위원장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단이 합의해 가
지고 보내주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5일 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5
일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북측에서의
보류하자는 뚜렷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
다. 확실하게 이유를 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鍾雄委員** 그래서 이제는 안 하네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그것은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됩니다.

○**朴鍾雄委員** 보내기는 누가 보냅니까? 문화산업
국에서 보냅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아닙니다.

이것은 각 회원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일부에 보내면 통일부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을

판문점의 연락관사무소로 보내면……

○**朴鍾雄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식으로 교류를 한다든지 또 보류가 된다든지 재개를 한다든지 하는 그 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통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朴鍾雄委員**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런 일은 안 합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문화관광부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연락을 해주면서 언론사에 대해서 심부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雄委員** 그러니까 왜 중단이 되었는지 언제 재개될지 하는 데에 대해서도 통일부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직접 연락하는 연락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받지 못했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朴鍾雄委員** 장관한테도 보고를 안 했네요? 아직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중요한데 장관님께서 워낙 바쁘시고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朴鍾雄委員** 장관께서 일을 아주 열심히 많이 하시네요.

굉장히 바쁘시네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제가 바빠서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담당국장 말씀은 통일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담당국장도 다른 얘기들은 것이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예.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러면 저한테 보고할 것이 없어서 보고 안 한 것이지 제가 바빠서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鍾雄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장관께서는 신문을 교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직접 보고는 안 받아도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들어가시고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견해라는 것이 즉흥적인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 남북의 교류, 화해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 정보의 교류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鍾雄委員** 그러면 빨리 재개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저희 부가 할 일인지는 분명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朴鍾雄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南景弼 위원께서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南景弼委員** 많이들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산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94년부터 계속 보면 한 26%에 이르고 있는데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전용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관광지개발보조금이 지역 편중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 편중이 심합니다. 지역 편중 하면 또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99년도의 보조금 총액을 보면 총액 231억 중에 강원도가 17%, 전라남도가 17%, 경상남도가 16%, 충청남도가 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보면 형편없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개년 비교표로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지역이나 이런 데도 교부금이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새천년맞이 행사에 관해서는 질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간단히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東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采委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듯이 매년 심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월과 전용 문제입니다.

99년도 이월액은 98억 2,000만 원으로 98년 이월액 207억 6,000만 원에 비해 50% 정도 감소시켰으나 문제는 99년 이월액의 88%인 86억 2,000만 원이 용산국립박물관 건립에 계속비 명목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사가 2003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계속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당해연도 예산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빈번하게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주도면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용은 경우는 145억 8,000만 원으로 지난 98년 66억 8,000만 원보다 무려 118%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립극장을 책임기관으로 전환한바 이에 따른 예산 83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99년 전용액은 오히려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충당을 위해 문화부 각 기관 사업비 절약액 1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 전용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확정된 권율 장군 서거 400주년 기념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문화부에서는 영세하기 짝이 없는 예술행사 민간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경상보조비를 각 단체마다 10% 정도를 감액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전용한 것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도서관의 경우 건립 당시 부실공사로 인해 현재 본관 건물의 안전 상태가 C급으로, 분관이 D급으로 판정받고 보수공사가 진행 중일 뿐 아니라 특히 본관의 경우 구조 보강공사 중에 심한 균열현상이 발견되고 99년 안전진단을 재 실시하여 설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0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 감리비 부족액 2억 7,000만 원, 용산중앙박물관의 감리비를 각각 1억 1,000만 원을 적게 계상해 놓고 부족분을 당해 기관의 시설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문화부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9년 국고보조금은 총 161건 4,100억 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88건에 761억 원, 민간자본보조가 13건 33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9건에 202억 원, 자치단체 자

본보조가 31건에 2,813억 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문화부에서는 객관적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 주변요인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소관 실·국별 예산의 배분 및 사업의 객관적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99년도 문화재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1,000만 원인 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176.5%인 70억 7,000만 원으로 30억 6,0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편성 시 계상되지 않았던 태릉종합사격장 부지 변상금 14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가 97년에 당시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 77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 사용 허가한 동 부지를 태릉 푸른동산에 임의 전대한 사실을 지적해서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단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99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능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청장께서는 푸른동산이 앞으로 법인의 파산이나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세입예산 70억 원 중 20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의 50%를 차지하는 태릉 종합사격장 부지 변상금 20억 3,7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적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 또 산하단체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답변할 필요가 없는 소속기관장이나 산하단체장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 시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속기관장이나 산하단체장들 중에서 답변이 필요 없으신 기관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 **委員長 崔在昇**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들 중에 얼마나 바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최단기일 안에 우리 부가 맡고 있는 일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역량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겠습니까마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제 지금 마음속 다짐으로는 이번 정기국회가 지난 이후부터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우리 부 간부님들의 도움없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부터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 沈載權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문예진흥기금 모금액 미납처리대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문예진흥기금 미납액은 1,206개 개인 및 단체에서 모두 31여억 원입니다. 195개 영화관 또 1,000여 명의 개인 및 공연예술단체, 전시기획사로부터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기금 회수를 위해서 모금액행의무위반자 또는 미납자에게 문예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미납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납금 회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와 함께 현지방문 회수 및 법적 조치 등으로 최근에 13여억 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조치와 또 소액 장기미납자의 경우에는 결손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高興吉 위원님께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서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國立中央圖書館長 尹熙昌 존경하는 高興吉 위

원님께서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의 보수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 건물은 건립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98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본관 건물은 안전성에서 보수가 필요한 C급, 분관건물은 즉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D급 판정을 받은 분관에 대해서는 98년 11월 전면 휴관조치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해서 99년 9월에 완료해서 11월에 학예논문관으로 재개관한 바 있습니다.

C급 판정을 받은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휴관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도 이용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건물안전관계 전문가회의를 거친 자문을 받아서 안전시공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공사내용은 먼저 샘플진단을 실시하고 공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년 9월 6일 착공했으나 서고부분에 있는 기둥 뒤에서 바닥 시멘트를 걷어내고 보니까 샘플진단과는 상이하게 예상보다 심한 크랙이 발견되어서 부득이 전체 기둥 주위에 대한 재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균열이 예상보다 심한 부분은 당초 균열 부분에 대한 화공약품 주입에 의한 보수계획을 수정해서 철근 아래부분까지 시멘트를 제거하고 보강철근을 싣고 케스콘이라는 특수약품을 주입해서 보수 보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0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결과입니다. 99년 이월분 공사는 금년 6월에 완료하고 나머지 보수 보강공사도 금년 10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관이나 분관에 대한 안전문제는 당분간은 아마 제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계측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다음 존경하는 高興吉 위원님, 申榮均 위원님, 姜申星一 위원님, 玄敬大 위원님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진흥기금고에서 퇴직금을 차입해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의 예산 변경 승인여부, 관리상 책임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내용, 영화진흥기금고 운영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의 중복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9년 5월 영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영화진흥공사가 해체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으로 19명의 퇴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적립된 퇴직금이 없었고 은행차입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의 부담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영화진흥금고에서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실무자간에 협의가 있긴 했으나 우리 부가 제시한 안은 첫째, 은행 차입을 우선 검토할 것, 둘째, 은행 차입이 어려울 경우 영화계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금고 과실금에서 용자하는 방안을 검토, 추후에 협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진흥금고에서 용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협의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의사전달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밝히겠습니다.

예산변경 승인 신청과 우리 부의 승인 문제는 동 사안이 법령이나 규정상 우리 부의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우리 부에 예산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우리 부 내부적으로도 국장과 과장,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영화진흥금고관리위원회 위원이 중복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방향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美卿委員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영화진흥금고에서 차입한 돈은 언제 반환하는 겁니까, 이미 반환이 된 겁니까?

결국은 차입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나온 질의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렇지 않고 영화진흥금고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 해 놓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담당국장 말씀이 반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李美卿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직접 말씀 드리세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의 현재 계획으로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5년에 걸쳐서 기본경비를 줄이고 자체경비를 좀 삭감해서 5년에 걸쳐서 매년 4억 원 내지 5억 원,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채워 넣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퇴직금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구조조정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美卿委員 그러면 5년에 걸쳐서 이자까지 해서 반환한다는 문제는 영화진흥위원회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林炳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해 올 것입니다.

○李美卿委員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映書振興委員長 柳吉村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런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우리 존경하는 崔在昇 위원장님 또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또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당시에 자금사정이 몹시 어려웠고요. 이미 한 19억에 달하는 은행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했고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이자로 차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물론 5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 저희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 직원들이 퇴직금을 단수제로 하는 문제를 노사 간에 임금협상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는 금액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쓸 수 있거나 또는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그 수익금도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대로 그냥 간다면 내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묶어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와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오해는 없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체 경상정비를 줄인 다든가 또는 자체수익을 늘린 다든가 하는 데 백방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저희들이 영화 후반작업에서 나오는 현상료라든가 더빙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자체수익금이 되는데요, 은행이자와 함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격을 좀 올리면 영화계에서는 엄청난 항의가 들어 올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렴한 가격에 지금 그 부분도 수익을 증대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좀 가지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애초에 영화진흥법에는 연간 예산을 승인받게 되어 있었지만 그 외 부분은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저희가 주무부서와 아주 명료하게 협의를 통해서 승인 요청을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걱정은 절대로 끼쳐 드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美卿委員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문제가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다시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차입되었던 돈을 어떻게 반환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를 문화관광부가 잘 협의하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그 방안까지를 같이 내주시는 것으로 장관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알겠습니다.

○申榮均委員 위원장,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영화진흥공사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구

구조정 했을 때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퇴직금을 다 지불했는데 그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19억 정도……

○申榮均委員 그건 다 갚았죠?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아니요. 지금 이자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23억을 더 플러스하면 그 이자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鄭柄國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추가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퇴직금 누진제를 1년에 1개월로 하는 것을 저희 노사 간에 임금협약에서 협약을 마쳤습니다. 금년도부터 1개월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이자를 주거나 또 이런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柄國委員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담당국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5년 내에 연차적으로 갚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원금을 갚는 것은 저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鄭柄國委員 아니 갚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은행부채도 19억 원이나 안고 있고 거기다 지금 23억 원을 5년 내로 갚는다는 게 가능해요?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그런 것에 대해서 수치적인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鄭柄國委員 이걸 짜는데 지금까지의 영화진흥위원회의 재산상태나 수익성으로 봐 가지고 현실성 없는 얘기로 당장에 이 현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지요.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금년도 또 50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정이 된다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鄭柄國委員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지금 그것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鄭柄國委員 노사 간에 협의 중입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아닙니다. 저희 주무부서와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柄國委員**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다음 정기국회에 다시 재론되지 않게끔 할 자신이 있지요?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美卿委員** 위원장에게 묻는 게 아니고 장관께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내놓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현실성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만 한다고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문광부가 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우리들한테 제안해 달라는 게 저의 요구였습니다.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申星一委員** 위원장, 나온 김에 장관하고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장관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하고 운영소위원회에 대한 구성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개선을 하겠습니다.

○**姜申星一委員** 진흥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실 운영이 되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姜申星一委員** 장관께서는 조정역할을 사실 해줘야 됩니다, 암암리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진흥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진흥법에 명시되었습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지금 몇 명입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8명입니다.

○**姜申星一委員** 두 사람은 아직 충원을 못 하고 있죠?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두 분도 원래는 계셨는데 사퇴하셔서 가지고 지금 현재……

○**姜申星一委員** 지금 얼마 동안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지금 제가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한 몇 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위원장에 취임하고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예, 그렇습니다.

○**姜申星一委員** 지금 7명 아닙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8명입니다.

○**姜申星一委員** 2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지요?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예.

그러니까 저희 개정 영화진흥법에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합의제로 되어 있지요?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예, 그렇습니다.

○**姜申星一委員** 그런데 8명이 합의제로 하고 있다고 지금 들리지 않거든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관! 같이 깊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합의제로 갈 수 있게끔, 일방통행적으로 가지 않게끔 이번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진흥위원회 이것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부터 조정을 해 주시면 진흥위원회는 진흥위원회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아예 팽개쳐 버리고 종전에 있던 진흥공사로 가 버리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나는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마는 전문경영인을 한 사람 두고 아예 전문경영을 해서 지난번에 해 오던 영화진흥공사로 아주 회귀해 버리든지 결판을 내셔야 돼요. 진흥위원회가 합의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잡음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 퇴직금 문제도 이렇게 유야무야…… 지금 보세요, 수익논리 가지고 이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다시 제가 다짐을 드립니다. 장관께서 아예 관여를 좀 하세요. 하셔야지 아무도 관여를 못 하고 있다…… 제일 영화계의 골치거리거든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李美卿 위원님과 姜申星一 위원님 말씀이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든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라 하는 말씀인데 법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것 외에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姜申星一委員**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

임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눈에 띄지 않게 한번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申榮均委員 일단 진흥금고 돈을 갖다가 명예퇴직자에게 지불을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꼭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그만 법이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19억을 은행에서 차입해서 못 갚았다, 이자는 갚는다, 그러면 별도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지 요청해서 그걸 갚아야지 왜 법에 어긋나는 걸 엄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회를 맡으면 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申榮均委員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녹음실하고 편집실하고 세트 사용하는 데 사용료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제가 월간은 잘 모르겠고요. 연간으로 따져서 지금 이십몇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2억 정도……

○申榮均委員 어쨌든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映畫振興委員長 柳吉村 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 鄭範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천년위원회와 지난 자정행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정행사를 비롯해서 새천년행사가 국가비전을 제시하지는 않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했다는 지적, 연예인들의 방송용 대형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천년준비위원회는 발족 이후에 정책비전 연구, 새 천년 정책모델 개발, 새 천년 환경제도 연구 등 중장기 정책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히 지난해에는 지나간 천년을 성찰하면서 새 천년을 다짐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행사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투영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정행사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시각에 대형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했고 이것이 세계 180여 개국에 텔레비전에 제 각각 소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사가 지나치게 화려했다거나 대형이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가 그 행사를 위해서 쓴 돈은 모두 38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사실상 우리가 새천년자정행사를 위해서 쓴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래 새천년위원회는 99년 4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늦은 출범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는 이 새천년 행사가 특별히 새천년위원회라는 별도기구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부처 단위로 관장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단체별로 중복되고 유사한 새천년맞이행사를 기획하고 또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 때문에 새천년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새천년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새천년맞이 이벤트성 행사들을 검토해서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을 피하게 했고 돈 많이 드는 행사는 취소하도록 권고해서 결과적으로 새천년행사가 준비됐던 것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던 예산 규모는 약 3,800억 정도 규모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다른 나라들의 자정행사를 위해서 쓴 비용이 있습니다마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새 천년 자정에 불꽃놀이 하는데 쓴 예산정도로 그 행사를 치렀다 하는 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천년의 문 재원 조달방안과 설계 표절 시비, 12대문 건립사업의 실현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

천년의 문 건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다. 규모가 정해지는 대로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100억을 넘지 않는 국고 외에 부족한 예산은 민자유치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천년의 문 표절 시비는 표절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美卿 위원님께서 특별히 새천년준비위원회가 12대문을 10년마다 하나씩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나?

그런 계획도 있었습다마는 지금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천년의 문 건립은 현재 재단법인 천년의문이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건립규모 등을 모색함과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李美卿委員 천년의 문, 12대문 짓는 것 안 하기로 된 것은 언제 결정된 겁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안 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하기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다 하기로 최종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李美卿委員 하기로 결정된 적이 없어서 없는 걸로 됐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습니다.

○鄭範九委員 새천년준비사업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관계서는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해 주신 보고서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우리 부처하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해 내려는 국회의원들하고 시각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새천년준비사업에서 우리가 단지 자정행사 이런 걸 적시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사업, 전반적인 문화사업이 내용을 갖는 쪽으로 가자는 문체의식을 제기했고요. 내용이 없는 이런 골조행사 중심의 것으로 저희가 새천년 맞이행사를 적시했습니다. 지금 장관 답변하시는 중에 이런 쇼나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무슨 새천년 정책모델도 논의를 하셨고 말하자면 우리가 지적하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9년에 집행된 새천년 행사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이 94억인데 문화비전2000사업 이것은 무슨 축제 전부 이벤트성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소위 콘텐츠 부분에 관련된 것이라면 새천년 미래비전과 방향제시 1억 4,400만 원 정도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鄭範九 위원님 말씀대로 새천년 위원회 예산을 놓고 보면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새천년위원회가 미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통령 소속의 정책기획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소속의 정책기획위원회와 새천년위원회가 공동으로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라는 심포지엄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콘텐츠를 주로 전담했기 때문에 새천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예산도 덜 쓸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範九委員 장관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부가 우리나라의 총괄적인 문화정책을 집행만 할 뿐 아니라 입안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인 문화정책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위원회가 머리 역할을 하고 문화관광부는 단지 행사나 이런 것의 집행부분 몸통부분만 맡았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문화관광부가 정책집행부서일 뿐만 아니라 주요 입안부서라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정책개발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기구를 활성화해서 지금 鄭範九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을 제대로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鄭柄國委員 그러면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새천년맞이행사를 몽땅 전부 다 기획한 겁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아닙니다.

새천년행사 기획은 정책기획위원회가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새천년의 국가 전략·비전에 대해서 계속, 제 기억입니다마는 한 10여 개의 과제를 담당해서 거기 전문가들이 연구보고서를 냈고 그것을 가지고 새천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가진 이후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해서 이벤트화 하는 작업을 새천년위원회가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鄭柄國委員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새천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을 가

지고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그 일환으로 행사를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아닙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문화정책에 관한 것만 한 것이 아니었고……

○鄭柄國委員 그러니까 12개 과제 중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부분도 다루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습니다.

그 중의 일부로 다루었습니다.

○鄭柄國委員 일부로서 다루었지만 문화정책의 방향은 결국 그게 전부인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게 전부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점이 있고요.

○鄭柄國委員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새 천년의 문화정책 방향이 문화관광부의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지침이 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중요한 참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南景弼委員 새 천년 답변은 끝나신 거지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행사 예산이 한 94억 원 정도 되었지요. 그 중에 예비비의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습니다.

○南景弼委員 예비비가 7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 추가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 예측할 수 없다고 보여질 수 없습니다. 이게 새 천년이라는 말도 그렇고 최소한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약 그러니까……

○李美卿委員 73.5%……

○南京弼委員 이것 李美卿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나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배경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새천년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게 된 전기가 99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것을 지자체 단위로서 새 천년 행사를 저마다의 지자체가 행사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대로 천년의 문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도 기획을 했었고요. 유사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99년 4월에 가서야 새천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는 새천년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것이고요. 왜 예비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게 됐느냐 하는 답은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고요.

(崔在昇 위원장, 崔龍圭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도 예비비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타게 되니까 이렇게 계획성이 없을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4월에 새천년위원회가 발족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집약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쓸데없는 행사는 자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천년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D-100일 행사, 새천년맞이 100일 전에 하는 행사를 급히 기획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신청했고요. 그때는 자정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정행사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D-100일 행사에 대한 예산을 그래서 예비비에서 1차로 신청하게 되었고요. D-100일 행사 이후에 12월 31일 밤행사계획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2차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南景弼委員 장관님 말씀은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새천년 행사인데 일과성으로 별 준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돼서 알차고 세계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면 돈을 더 쓰는 것도 상관없는데, 지금 장관님 표현하신 대로 급히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새천년준비위원회 총 사업비가 약 17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0% 한 10억 정도가 홈페이지 제작 등 경상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비에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쓰면서 이런 조

직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잘 새겨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졸속하지 않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사전에 잘 챙겨서, 제대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준비위원회 경상비 포선이 크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 기구이고 기존에 있던 조직에 새로운 임무가 맡겨진 것이 아니라 새로 사무실도 얻어야 했고 사무집이나 이런 것을 새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경상비 포선이 커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구라는 성격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경상비 포선이 커지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추가로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과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드컵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지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李美卿 위원님께서서는 홈스테이제도의 적극 도입문제 등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10개 도시에 약 14만 실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공급 가능한 숙박시설은 호텔이 약 4만 5,000실로서 나머지 9만 5,000여 실이 어떻게든 준비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호텔 숙박시설을 뺀 여관 등의 공급 가능한 숙박시설은 10개 도시 인근에 총 33만 실이 있습니다.

저희 부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33만여 공급 가능한 숙박시설 중에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여관 등을 지정 숙박시설로 지정해서 월드컵축구대회를 위한 관람객 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금년부터 연차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353개소의 1만 1,171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시설 개·보수자금을 용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 숙박시설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현재의 연 6%에서 3%로 저리 융자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광공사 등과 연계해서 홍보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정 숙박시설은 월드컵 이후에 관광호

텔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전제로 추진 중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고 전기료를 감면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해서 현지의 많은, 아까 러브호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방 하나를 여러 번씩 회전시키는 영업 이런 것에 대한 세수관리를 강화한다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홈스테이제도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민박 이용도를 제고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10개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별 숙박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관광공사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박 운영 노하우를 전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연 5회에 걸쳐서 외국인 민박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가구주의 민박운영 전문성 제고를 추진 중에 있고 외국인 민박 해외홍보용 종합안내서 5만 부를 발간했습니다. 또 이를 해외지사에도 배포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 있는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민박을 위해서 필수정보를 수록한 가구주 민박안내서를 10월에 발간했습니다. 민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부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鄭柄國委員**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께 숙박시설 확보대책으로 숙박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계획했습니다마는 월드컵 개최가 약 1년 반 뒤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새로 임명된 월드컵조직위원회 정몽준 이연택 두 위원장님과 저, 셋이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에서의 허가나 이런 것들을 서둘러 준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가 심각한데 상암동 근처의 일부 부지는 가능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숙박단지를 위해서는 훨씬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에 마땅한 곳이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

다.

○鄭柄國委員 처음에 언론 지상을 통해서 숙박단지 만들어서 부족한 객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추진 안 된다면 다행한 일인데, 현재 여관을 숙박시설로 전환하고 있고 기 1만 1,000실 정도를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월드컵이 앞으로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예약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치된 관광객이 입장권을 확보하고 숙박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행기 예약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 이전에는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약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약시스템 구축은……

○鄭柄國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FIFA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朴良雨 관광국장입니다.

지정 숙박제도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현재까지 약 1만 1,000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해야 될 해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약 5만 실을 하고 그다음에 3만 5,000실 정도는 2002년 3월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정숙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을 쓰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용자 6%를 3%로 주고 다른 세제상의 특해도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약전산망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4만 5,000실의 호텔에 관한 것은 FIFA에서 전부 주관해서 바이롬사라고 하는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호텔에 관해서는 사실 예약망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중저가들을 어떻게 링크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여관의 예약전산망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공사에서 연구하고 있고 10월 말 내지 11월 초쯤 되면 예약전산망에 대한 컨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鄭範九委員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1만 1,000실의 예약시스템 구축은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朴良雨 예약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에서 컴퓨터로 어느 하나의 망으로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관광공사에서 주문받아서 그 쪽에다 팩스 또는 전화를 통해서 안내해주는 그 정도 시스템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이른바 통합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鄭柄國委員 그러면 1만 1,000실 지정되어 있는 지정업소는 지정되기 이전과 지정된 이후의 차이가 됩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朴良雨 기본적으로 이것을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2002년도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관광객을 30% 내지 50% 포션을 두어서 방을 내놓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3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중저가시설은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과 달리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예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정상적인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기 한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鄭柄國委員 예약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를 통한 팩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중개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직접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朴良雨 예,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美卿委員 99년도 중저가시설에 대한 건축시설 개·보수비 133억 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朴良雨 IMF 되고 난 다음에 사실 호텔신축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서 호텔 객실 하나를 지으려면 3억 내지 5억 원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 호텔을 지을 만큼 돈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을 지으려면 많은 현금이 필요한

데 그만한 돈도 없고 그리고 땅이 있어도 토지이용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세제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저가체인점을 하나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실제적으로 IMF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뛰어들 만큼 기존 호텔업자들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李美卿委員 1만 1,000실로 되어 있는 거기는 개·보수 안 해도 돼요?

○文化觀光部觀光局長 朴良雨 중저가체인점하고 지정숙박제하고는 다른 것이, 지정숙박제라고 하는 것은 여관을 지정해서 저리용자로 시설을 새롭게 고쳐주고 2002년도 월드컵 때 일정 포션의 방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여기 기금으로 중저가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기존의 일반 관광호텔들을 외국의 유명한 업체와 연계시켜서 그 쪽 높은 수준의 호텔을 만드는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외국에서도 IMF가 난 다음에 투자를 못 했고 우리나라 신라나 그 쪽에서도 계획은 많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체인점에 투자할 만큼 돈이 여유치를 못해서 결국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鎮碩委員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신임장관이 출석하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탁드렸는데 보름 전에 요구한 자료가 당도 안 해서 오늘 4시까지 보내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제가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장관이 돈을 얼마나 썼나 이것을 따지기보다도 장관이 지난 몇년 동안 그야말로 장관직을 성실히 수행했느냐를 한번 리뷰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라는 것이 이미 문광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복사 한 30분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려서 1시간 30분 정도면 제 사무실에 당도할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부랴부랴 만들어 온 자료라는 것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일시, 사용처, 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용명세서, 이런 구체적인 명세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4시 좀 지나서 부랴부랴 갖다 던진 자료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쓰지를 전혀 모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사용내역이나 사용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엄연히 국회법 10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경고해 두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내역을 성실하게 오늘 9시까지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1시간 30분밖에 안걸리는 사안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복사하는 데 30분 걸리고 갖고 오는데 1시간밖에 안걸려요. 보름 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차관, 차관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첨부해 주시고 문화재청장 또 국정홍보처장의 업무추진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까지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장관 처음 출석했는데 욕 먹이지 마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姜申星一 위원님께서 표준국어대사전 발간보급이 미진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표준국어대사전은 3권 한 질 가격이 27만 원입니다.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작년 10월 발간 이후에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자료로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약 4,000질이 판매되었고 손익분기점은 2만 질이 되겠습니다.

○姜申星一委員 보급을 하기 위한 홍보는 문광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홍보에 대한 업무까지는 안 맡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저희 부에서 직접 각 부처에 이런 좋은 사전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활용해 달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공문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요.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국어사전인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난

번 연구원 쪽의 관계자를 우연히 만나서 물어 봤더니 홍보를 전혀…… 참 어렵다고 하니까 이번에 장관께서 이것은 참 좋은 주요사업 실적의 하나인데 홍보비를 더 써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이 많이 보급되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姜申星一委員 또 한 가지는 국어연구원 공사가 현재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완공이 되어서 다 이사를 끝마쳤습니다.

○姜申星一委員 그런데 이전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이전 행사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姜申星一委員 저도 미처 몰랐네요. 좀 연락을 해주셨으면 축하를 해야 되는데……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초청을 드렸을 거라고 그러합니다.

○姜申星一委員 그렇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님과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의 상당액이 다른 용도에 전용 재원으로 충당되었고 이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99년도의 연구개발비 예산 중에 다른 용도로 전용된 금액은 총 91억 9,400만 원이었고 그 주요 내역은 하나하나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鄭範九委員 91억 4,000만 원이 연구개발비면 전체 사업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저희 문화관광부 전체 연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鄭範九委員 지금 91억 4,000만 원이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광부 산하의 전체 연구개발비입니까, 무엇의 총액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습니다.

○鄭範九委員 91억 4,000이 문광부 산하 예산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습니다.

○鄭範九委員 그러면 이것 전체 지난해 문광부 사업 예산의 몇 %나 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範九委員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이 예산 잡기 위해서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도 하나 옳고요. 둘째는 제 화두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구조를 우리가 못 버리고 콘텐츠 개발 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것이 연구개발비 항목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문광부의 정책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같이 답아서 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상 용어표현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용상 굉장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연구개발비가 91억 9,4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라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과목 중에 국립중앙극장 위탁사업을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 81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왜 사실은 연구비가 아닌데 국립중앙극장 위탁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편성했느냐 하면 예산과목상 국립극장이 99년도에 위탁사업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획예산처와 우리 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鄭範九委員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이 좀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91억 9,400 중에 민간위탁금 80억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鄭範九委員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순수 연구개발비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예, 순수 연구개발비는 약 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鄭範九委員 그러면 여기서 또 전용을 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도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이……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柄國委員 지금 90몇억이 전용된 액수 아니에

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전용된 액수가 아닙니다.

○鄭範九委員 전체 연구개발비라는 얘기인데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예, 전체 연구개발비라는 예산 명칭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국립극장의 일반예산, 사업예산이 국립극장이 위탁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개발용역비 속에 국립극장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국립극장이 위탁기관으로 안 되고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이 국립극장의 일반사업비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81억 600만원이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사업비로 전용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範九委員 그 말씀도 의견상 맞는데 그 사항은 저희도 요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했던 것은 특히 문광부 문화정책에서 연구개발비 부분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개발비를 적시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간 부분의 전용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편성된 것들이 부당하게 전용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鄭柄國委員 국립극장 민간위탁 용역사업비로 편성된 81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의 총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것이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鄭柄國委員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문화관광부 99년 전체예산이 8,300억 정도니까 한 10억이라면 아주 극소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鄭柄國委員 그런데 지금 적다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예, 인정을 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장관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鄭範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주장하신 바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함부로 우습게 보는 이런 부분도 이제 불식될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비 예산의 포션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鄭範九 위원님의 또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복성이 있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산업은 그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촉진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99년에 새로 신설된 공공기금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 전 분야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은 우수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용자 지원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공공기금들과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자지원 이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에 통합DB를 마련해서 체계적 중복 지원 방지 시스템도 구축·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및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서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에 공공기금 관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하는 말씀도 올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鄭範九 위원님과 姜申星一 위원님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 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급속히 변화하는 관광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종합관광안내소 설

립, 화장실 개선작업, 지도 제작 등은 충분한 국고 확보를 통해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래 관광객의 폭증과 국민 여가시간의 증대로 관광 수요에 비해 관광예산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국고 확보가 어렵거나 미진한 사업에 한해서 기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은 포함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鄭範九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던 국제청소년센터 건립사업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부담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국제청소년센터는 건립기본계획 수립 시에 부지매입비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건립비는 국고와 기금에서 각각 50%씩 반영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 센터 건립목적이 국제청소년 교류와 민간 차원의 청소년 활동 활성화라는 국가적 사업수행이라는 점과 이를 건립·운영할 주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위해 우리부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동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이외의 소요 예산을 기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과 南景弼 위원님께서 관광지개발보조금 지원의 시·도별 편중문제에 대한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보조금은 시·도별 관광지수, 관광지개발규모, 개발계획·기간, 국고지원 규모, 당해 시·도의 예산신청 우선순위와 신청규모 등을 종합·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므로 관광지별 시·도별로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관광지나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일부 집중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총액이 가장 많은 강원도의 경우는 전국 시·도의 지정 관광지 194개소 중 35개소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 안면도

관광지의 경우는 총 사업비 중 국고 지원액이 281억 원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99년에 14억 5,500만 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시 각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국민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히 사업 실현성과 지역 균형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鎮碩 위원님께서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신장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주시면서 과거의 언론개입 사태, 청와대 출입기자 출입금지 조치 등 불미스러운 사례를 지적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 언론 주무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언론에 대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까지 일해 왔습니다. 또 그러한 鄭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언론 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언론계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혀 드리겠습니다.

○鄭鎮碩委員 취임 이후에 언론인들하고 좀 접촉을 하셨습니다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취임 이후에 언론사를 하루에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접촉을 거의 못 했습니다.

○鄭鎮碩委員 문광위 상임위원들보다는 역시 언론인들이 우선이구먼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朴鍾雄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신데,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鄭鎮碩委員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 당시 상황이 아시듯이 또 야당분들은 밖에 좀 나가 계셨고 했기 때문에 인사 드리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이 없었거나……

○鄭鎮碩委員 그리고 별도로 언론사 사주들과 자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없습니다.

○鄭鎮碩委員 언론사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과 별도 모임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없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부 출입하는 기자들과 점심 먹은 것이 전부입니

다.

○鄭鎮碩委員 그렇지요? 金 장관께서도 과거에 대변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언론인들하고 많은 접촉이 계셨을 텐데 주로 언론인들하고 대변인하고 접촉하게 되면 기사화된 것 가지고 얘기가 많이 오갑니다.

예를 들어서 톱기사감도 안 되는데 이것 톱으로 올렸느냐, 이것 너무 작게 취급된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의견 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광의로 보면 그 자체가 간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아주 명료하게 천명하신 대로 언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어도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꼭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저는 장관님께서도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우려면 언론자유의 완전한 보장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또 그야말로 우리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이라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된 것도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정말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라는 국제적인 격려의 의미도 담겨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어야 되고 그것이 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은퇴하신 분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에서 朴智元 전 장관의 전철을 밟는 인사가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아주 원칙적인 말씀 주신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새겨듣고 또 그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실제로 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鄭東采 위원님께서 국립중앙박물관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물관 신축공사 감리 전문회사는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마는 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서 99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부과업종으로 변경이 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회사에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예산 편성이 누락됨으로써 동 부족금액을 어쩔 수 없이 전용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鄭東采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사업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지원의 명확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법령과 예산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비 부담능력,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교부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 예산의 50% 이상이 국고보조금인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관리요령을 제정·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우리 부가 조금 더 깊이 심도있게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鄭東采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鄭東采 위원님과 南景弼 위원님이 새 국립중앙박물관건립사업비가 매년 이월되는 사유와 박물관 건립의 현재 공정률,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원인은 설계·용역 기간의 연장으로 공사계약이 97년 10월 23일에 체결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는 박물관 건립부지 내에 지반 조건이 연약 토질로서 콘크리트 말뚝을 철강 말뚝으로 바꾸어 시공하는 과정에 시험과 자문, 재시공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99년에는 연부액에 대한, 공사기간이 99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2000년 9월 말 현재 공정은 29.03%로 철골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는 당초 예정대로 2000년 말 완료로 공사가 추진되어 가고 있어서 특별한 변화 요인이 없는 한 2003년 개관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후손에 물려줄 문화유산인 점을 감안해서 개관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견실하고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龍圭 간사, 崔在昇 위원장과 사회교대)

朴鍾雄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辛基南 위원님이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부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았습니

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로서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겸해서 올립니다.

아까 辛基南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세계의 수많은 수만 종류의 언어 중에서, 글자 중에서 글자를 만든 사람과 만든 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있는 유일한 글자가 우리 한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념일, 국경일 이것은 꼭 필요하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辛基南委員 맞습니다.

나라 만든 것보다 민족을 만든 것이 더 위대합니다. 더 큼니다.

광복절은 나라를 만든 것이고 한글을 만든 것은 민족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휴일로 복원하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경일로 승격시키자라는 움직임을 문화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휴일로 만들자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국경일로 하자는,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辛基南委員 金大中 대통령은 꾸준히 매년 문을 두드리다가 평화상이 14년 만에 되었는데 이것은 몇 년이나 그렇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2년 전부터……

○辛基南委員 2년은 너무 짧군요. 좀 진작 하셔야 되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辛基南委員 저도 여론을 살펴보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거의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숨을 죽이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기업가 측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때가 무르익었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가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부나 문화위원회에서는 서로 합쳐서 문화부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강력히 지금 피력하는 바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아까 존경하는 鄭鎭碩 위원께서 또 한번 얘기하는 것을 밖에서 들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 안 쓰시도록 한 번 지적하면 바로 바로 하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朴文錫 예.

○委員長 崔在昇 그것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내일까지 또 연기하고 그러는데 답변자료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니까?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揆喆委員 숙박단지 조성은 안 하시는 것인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중저가 숙박단지 조성은 아까 鄭柄國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월드컵을 위한 조성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10개년 계획 정도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沈揆喆委員 월드컵과 관계 없어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월드컵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沈揆喆委員 그러면 그 숙박단지를 어디다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월드컵과 관계 없이도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沈揆喆委員 지금 각 호텔의 공실률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공실이 없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거의 빈 방이 없

지요.

지금 우리가 10년 이내로 연 입국 관광객 수를 1,0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텔 객실 수는 4만 5,000 객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저가의 대규모 숙박단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문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답변하세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문화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美卿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範九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의 전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는 辛基南 위원님, 鄭柄國 위원님 또 沈載權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저희 문화재청의 연구개발비는 문화재연구소의 여러 가지 각종 실제 조사비라든지 발굴조사 또 기초조사 연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다른 데 쓰기도 하고 또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 전용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용하다 보면 사업목적과 위반되어서 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鄭範九委員** 청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도 처음부터 이것이 불요불급하거나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는 건데 그냥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그런 말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했다가 집행하다 보면 조금 잔액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경우는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沈載權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沈揆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올

리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의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과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지 않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최대 고증을 통해서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을 지금부터 해오면서 전문 학술기관에 의한 고증 연구조사도 95년도와 96년도에 해왔고요. 또 학술세미나도 3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해외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네 번이나 저희가 해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와 고증을 통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계의 고건축전문가라든지 고고학자들을 망라한 한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하시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고증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揆喆委員**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 들으면 고증을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고증이 안 끝난 사업인데 지금 4,500억 원들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 그 사업이 이미 착수됐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증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백제라고 우리 국민들과 외국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착수해야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백제역사재현단지사업은 저희가 일관되게 문화재적인 어떤 고증을 철저히 해가면서 이 사업이 우리 국민이 역사, 백제역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역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단지도 하고 그래서 문화재를 실제 국민한테 저희가 말하자면 체험할 수 있는 단지로 만드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역사재현단지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번 어떤 지역별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차제입니다.

그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문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그러한 고증을 철저히 시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은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할 것입니다.

○沈揆喆委員 그 사업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은 약간의 역사 고증이 부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하는 사업이라면 좀 격이 맞아야 됩니다. 문화재격이 맞아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품격이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백제다라고, 국민에게 역사의 고증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뉘를 잔뜩 지어 놓고 뉘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백제입니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전통민속 재현사업은 사실 고고학이나 또 고건축학, 민속학, 역사학 등의 고증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러한 고증을 철저히 해서 말하자면 역사가 오역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沈揆喆委員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백제사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을 문화재청의 소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청이라면 문화원형 보존이 기본 임무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많은 문화재가 깔려 있는데 우리 역사유물로써 인식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데 착안해서 사업을 벌여야지 관광사업 비슷한 일을 문화재청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文化財廳長 徐廷培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鄭柄國委員 백제역사재현단지가 현재 역사적인 고증이라든가 학술적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짜여졌다는 얘기에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고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때 위원회가 있고 고증을 듣고 해 가지고 확인하면서 일을 추진한다는 말씀 올리고……

○鄭柄國委員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결정할 당시에 이미 고증이라든가 학술적인 조사가 다 끝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복원하겠다는 방향이 나온 다음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책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예, 그렇습니다. 기본고증은 끝났습니다.

○鄭柄國委員 그래서 청장 입장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다시 재현해 내는 데 학술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문화재적인 차원이 아니고 단지 일반 관광사업 측면에서만 하게 되면 관광위탁단지나 놀이터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고증에 특히 유념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학계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鄭範九委員 한 가지만 계속 물고 늘어지겠는데요. 사업을 외형적으로 확장하는 문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시할 때 국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문화재청이 연구개발비의 10% 가까운 부분을 전용한 데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文化財廳長 徐廷培 다음은 鄭東采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태릉 푸른동산의 변상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채권 확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릉사격장은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77년도부터 사용허가해 줘 운영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법상에 임의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해서 태릉의 푸른동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저희가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쪽에서는 소를 제기 중에 있고 지금까지 무단점유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속히 적법화하기 위해서 처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무단점유 상태가 계속된다 하는 전제조건을 두고 예산에 변상금을 계상하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압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가압류상태를 시행하고 또 채권도 완전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龍圭委員** 청장님, 소송은 모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동산이 제기한 소송은 전부 기각 당했고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집행만 하면 되는 단계로 저는 아는데 사후대책에 관해서 오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27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할 것인데, 사격장 조성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70년도입니다.

○**崔龍圭委員** 朴正熙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조성되어 30년 동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격장을 설치했습니다. 태릉선수촌도 같은 위치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환수했을 때 대책에 관해서 국감질의 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기대하고 제가 아까 사회를 보느라고 질의 못 했는데 한 가지 27일 답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풍납토성 문화재조사와 관련해서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매달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내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주민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어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거론한 것이 벌써 3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이든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과정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문제라는 안이한 인식을 하지 말고 적어도 27일까지는 정확한 답변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廳長 徐廷培**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납토성 경당연립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 달이나 11월까지의 결말지을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崔龍圭委員** 이 달이나 11월 이런 식으로 막연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장님 그런 한 말씀에 벌써 몇 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 국감 답변 시에는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청장, 항상 느끼는 것인데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27일 해달라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또 질의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같길 바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예.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範九委員**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총액계상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총액계상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 내고 그 안에서 돈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웁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먼저 각 시·도에서 내년 총예산규모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약 1,600건 7,000억 정도의 신청규모가 됩니다.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해 문화재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 말하자면 보호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 다음에는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이 세 가지 기준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鄭柄國委員** 검토라고 하는 것이 문서상의 검토입니까, 현장실사를 하는 것입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문화재위원들에 의한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500여 건 중에 700건 정도, 1,000억 정도 해서 한 16% 정도만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姜申星一委員** 해양문화교육관 건립되었지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예.

○**姜申星一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목포에 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백마강 옆에 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예, 알겠습니다.

○**沈揆喆委員** 하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재 훼손여부가 적시에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자료만으로는 예산 지원여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지원 심사 시 문화재청에서 실태조사한 건수는 전체 1,235건 중 186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래서 심사의 정확성 여부가 의문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지원 심사를 담당할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지방 자체의 문화재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중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지방에서 오는 서류를 저희가 믿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대표성있는 것만, 경우에 따라 필요성이 있는 것만 선정해서 합니다.

○沈揆喆委員 그러면 심사의 정확성이 의문시된다는 이 보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文化財廳長 徐廷培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조사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揆喆委員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백제문화 재현을 위해서 4,528억 원이라면 대단한 돈입니다. 지금 문광부가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 중에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12년 계획사업입니다.

○沈揆喆委員 어쨌거나 큰 사업인데 방만하게 운용되는 예산을 절약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財廳長 徐廷培 충분히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유의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안에 高興吉 위원, 李美卿 위원, 姜申星一 위원, 玄敬大 위원, 鄭鎭碩 위원, 姜成求 위원, 崔龍圭 위원, 南景弼 위원, 尹鐵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를 대한 답변서를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 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각각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199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정부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1999회계연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의 결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성과에 대해 많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문화발전 및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앞으로 정책수립이나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한 다음 국정홍보처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다. 국정홍보처소관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 국정홍보처소관

○委員長 崔在昇 그러면 계속해서 국정홍보처소관 19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결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국정홍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崔在昇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국정홍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처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홍보처 전 직원은 99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결과를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처는 지난해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 시 신설된 이래 신뢰받는 정부상 구현에 기여하는 국정홍보를 위하여 국정홍보의 새 패러다임 정립, 국정홍보 추진 시스템의 재구축, 국민 여론의 국정반영도 제고, 국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대국민 직접홍보 사업의 활성화, 국익추구의 해외홍보 등을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첫째, 국정 홍보 추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정부 부처 간의 홍보협력 체제를 강화하였고 민간 PR전문기관을 컨설팅업체로 선정하여 국정현안에 대한 민간홍보기법을 국정홍보에 접목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국민 여론조사·전문가 의견조사 등 체계적인 여론조사와 국정모니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민여론의 국정반영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보유매체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홍보수단을 다양화시켜 국정정보 서비스와 대국민 직접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추구의 능동적 해외홍보를 위해 한국관련 영문포털사이트 Korea.net을 개설하고 대외홍보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홍보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외국언론인 대상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한 1999년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 1억 6,771만 원에 수납액은 3억 9,048만 원으로 2억 2,277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우리 처가 신설되면서 문화관광부 및 총리실에서 이체받은 예산액 244억 3,878만 원에 예비비 60억 2,143만 원을 합한 304억 6,021만 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 이중 291억 5,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37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국정홍보처 결산개요를 보고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홍보기획국장으로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圭錫 차장입니다.

吳洙東 홍보기획국장입니다.

俞載雄 국정홍보국장입니다.

高昇羽 분석국장입니다.

金命植 해외홍보원장입니다.

高錫晚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입니다.

成彰基 해외홍보원의신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東采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네.

○鄭東采委員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간관계상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鄭東采 위원께서 동의하신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金宗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宗鉉 金宗鉉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초과세수 과다발생은 연례적인 행사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9쪽의 수입대체경비수입의 저조한 수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영상간행물제작 관련 수입대체경비수입의 예산현액은 1억 4,543만 원이나 예산현액 대비 25.1%에 해당하는 3,657만 원만 수납되어 매우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는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책임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예년에 비해 수납률이 대폭 떨어진 것은 운영에 대한 개선 노력이 크게 요구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중 국가주요시책 광고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주요시책 광고는 정부의 새 정책이나 주요 국정현안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동참으로 효율적인 정책시행을 돕고 아울러 건전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수십 년간이나 보류하다가 시행한 의약분업이나, 국민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조정 시행 등에서 시사하는 바는 효과적인 광고수단을 통한 국가주요시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국가주요시책 광고관련 예산 및 집행액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화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표출, 광고비 등 물가상승, 정부예산의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주요시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액수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사업에 거의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예산편성 시에 미리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용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 방송광고보다 TV 캠페인광고의 효과가 크다는 측면과 광고비의 절대액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방송광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광고를 줄이는 대신 TV 캠페인광고에 중점을 두어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98년도 집행상황이 보여주듯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매체별 광고효과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의 중복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정신함양사업의 일환인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은 9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건전한 윤리의식·책임의식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의 기반구축 및 실천력 제고를 목적으로 각 시민단체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단체 수는 늘어나는 반면 1개 단체당 평균지원금액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처럼 목적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보다는 단체간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 자칫 어느 시민단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별 변동이 없지만 신청단체 및 지원단체수가 99년도에 대폭 증가

한 것은 시민단체 운동이 활성화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은 첫째, 정착되지 않은 형성기 단계에 있고 둘째, 행사성 사업이 많아 창의적인 사업추진 방법들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서울에서의 사업보다는 지방현장의 사업결과가 좋았다는 98·99 민주공동체실천사업 평가에서 제시한 결과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9년도 시민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중복하여 국정홍보처가 지원한 단체는 총 61개 중 절반을 상회하는 32개 단체이며 지원금액은 총 9억 9,900만 원 중 59.6%에 해당하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99년도 예산지원은 행정자치부 150억 원, 국정홍보처 10억 원, 대통령소속의 여성특별위원회 3억 6,650만 원 등으로 중복지원하고 있는바 이는 각 부처의 특성을 살리고자 지원한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동일 단체에 대해 각 부처별로 중복하여 지원하는 데서 오는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국정홍보분석 관련비의 과다 전용 및 불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이해·분석과 더불어 신문·방송·신매체 등 언론보도매체의 보도·논평 등에 대한 수집·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분석국의 예산현액 2억 1,909만 원 중 예산현액 대비 39.2%에 해당하는 8,5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당초 예산액 2억 3,223만 원과 예비비 1,543만 원 중 2,858만 원을 홍보기획국과 국정홍보국의 업무추진비로 전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52.3%에 해당하는 1억 1,454만 원을 전용 또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국정홍보처가 신설됨에 따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공공요금 등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 1,167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으나 일부 사업 집행이 지연되어 오히려 관서운영비의 불용액이 8,381만 원에 달하였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신문논조 분석과 방송보도 분석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71.4%와 44.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조직신설 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다한바 국정홍보의 기초자료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을 기한 홍보기획 및 집행은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지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홍보원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신설되면서 문화관광부 소속의 해외문화홍보원을 해외홍보원으로 개칭·이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0개의 재외 문화홍보원 중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오타와, 오사카 등 6개의 재외 문화홍보원을 국정홍보처 소속으로 하고 LA, 뉴욕, 동경, 파리 등 4개의 재외 문화홍보원은 문화관광부에 남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사한 문화홍보업무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중복 수행한다는 것은 정부조직의 중복편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업무의 통일성 측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캐나다 오타와 및 일본 오사카 문화홍보원은 99년도 운영예산 편성 없이 주미국·중국 문화홍보원의 운영예산 중에서 아래표와 같이 지원·집행하였습니다.

주미국·중국 문화홍보원의 경우 이와 같은 일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사업계획의 취소 없이 단지 경상경비의 지출을 일부 축소하여 집행하였다고 하나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지원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래 목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주미국·중국 문화홍보원의 경상경비는 예산액 대비 잔액률이 각각 11.0%, 1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타와 및 오사카 한국문화홍보원에 각각 1,020만 원 및 7,829만 원씩을 지원하고도 이렇게 높은 잔액률을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여론형성충대상 홍보사업, 한국관련 영문자료 DB 구축사업, 국립영상간행물제작 관련 불용 및 전용부분은 역시 구두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자체·외주제작 및 본방률 제고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자체제작·외주제작·외국 프로그램구입으로 대별하여 연도별 추이를 비교 검토해 보면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프로그램 구입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방송계의 기술발전 또는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외국프로그램 구입보다는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내용의 다양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프로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제작편수의 감소와 본방률은 감소하는 대신 재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방송내용의 단순함으로 인해 시청률의 저하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수, 제작편수, 본방률 등 제반상황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목적외 집행에 대해서 역시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대통령 해외순방 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비 등 9억 5,055만 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이전관련경비 18억 1,725만 원, 국가주요시책광고 등 사업수행관련경비 20억 6,158만 원, 본부인건비 8억 8,150만원 등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비 등의 불용률이 10.3%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해외순방 일정의 단축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이전관련경비나 본부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의 불가측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국가주요시책광고비와 같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성 경비는 예산회계법상 예비비의 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집행했어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在昇 金宗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鄭東采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采委員 제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방금 金宗鉉 전문위원께서 누누이 지적한 바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면으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鄭東采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 질의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鄭柄國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鄭柄國委員 鄭柄國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부터 공보처에서 시작된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은 국정홍보처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중복지원하고 있어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처 간의 예산중복 문제는 철저히 그 부처 간 예산조정을 통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자칫 관변단체를 만드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고 특히 지난 총선 당시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펼침으로써 낙선운동 자체가 행정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야당탐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시민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예산 지원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부처 간 중복지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를 대변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은 관변단체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홍보원이 생기면서 해외의 10개 지역에 있던 문화홍보원이 6개는 해외홍보원으로 소속이 바뀌고 나머지 4개는 아직 그대로 문화홍보원으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홍보원하고 문화홍보원하고 하는 일이 차이점이 어떤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해외홍보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吳洙東 LA에도 있고……

○鄭柄國委員 LA하고 뉴욕에 있는 것은 문화홍보원이고 미국에 있는 해외홍보원은?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吳洙東 워싱턴 그 다음에 LA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柄國委員 LA에도 해외홍보원이 또 있습니까? 홍보관만 있지 홍보원은 없지요. 워싱턴에만 있는 거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吳洙東 그렇습니다.

○鄭柄國委員 그런데 보면 유독 다른 나라의 해외홍보원에 비해서 미국에 있는 해외홍보원만이 인건비가 무려 2억 2,000만 원이고 경상비로 쓴 것이 사업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은 인건비에 비해서 경상비 및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독 미국만이 이런 이유는 무엇인지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경상비 포함해서 사업비 1억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지난 한 해 동안 99년도에 했던 사업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해외홍보원을 설치한 목적에 마땅하게 활동을 하는 데 유효한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鄭範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鄭範九委員 제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沈揆喆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沈揆喆委員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지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자체제작·외주제작·외국프로그램 구입으로 대별해서 볼 때 지금 자체제작·외주제작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프로그램 구입비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외국프로그램 구입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吳洙東 저희 영상간행물제작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國立映像刊行物製作所長 高錫晚 안녕하십니까,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주필름 구입 부분은 지금 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구입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2000년도에는 필름구입을 한 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

금 표상에 나와 있는 96년도 구입한 것을 97·98·99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9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오고 99년도에는 적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沈揆喆委員 아니, 국립영상간행물을 제작하면서 외국프로그램 구입으로 내용을 채운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國立映像刊行物製作所長 高錫晚 지금 현재 외국프로그램은 정확하게 3%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실제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75%고요. 외주제작이 11%고, 아까 말씀하신 필름구입 프로그램은 3%에 불과합니다. 액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포가 나온 것 같습니다.

○沈揆喆委員 제가 이걸 묻는 취지는 우리 국정홍보처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방송업계의 실정이 지금 콘텐츠 개발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외국프로그램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경향인데 이러한 경향에서 지금 위성방송까지 하겠다고 나서니까 제가 앞으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정홍보처만이라도 콘텐츠 개발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능력을 길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姜申星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姜申星一委員 해외홍보원에 현지인도 채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오타와나 오사카 같은 데는 몇 사람이 해외홍보요원으로 지금 근무하는지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실 해외홍보를 하려면 현지인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일용직 같은 것은 현지채용도 합니다.

○姜申星一委員 일용직 말고 월로 급여를 제공해주는 현지인이 채용되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잘 파악이 되고 있느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파리에 갔더니 파리에는 분명히 한국문화원이 있거든요. 홍보처에서 얘기하는 문화홍보원은 없지요?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저희 홍보관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광부에서 나갑니다.

○姜申星一委員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

일이나 현지인을 일용직으로만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현지인도 씁니다마는 현지교포들을 중심으로 일용직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姜申星一委員 제가 모처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하는 일이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는 것은, 국정홍보처에서도 홍보물이 계속 들어가지요?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예, 그렇습니다.

○姜申星一委員 그뿐만 아니라 벼라별 홍보물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보면 계속 비행장에 가서 홍보물을 사무실에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사카나 오타와 같은 데는 잔액이 있거든요. 잔액률이 높지요? 무엇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지요?

현지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현지인을 써서 홍보하면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지인을 쓰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홍보처장께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지인을 채용할 때 대체로 일용직을 쓰더라도 인건비가 문제거든요. 이것을 잘 책정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지에 여기서 가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현지인은 못 쓰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처장한테 현지인에 대한 경비를 요구하게 되면 과다하다고 해서 대체로 비토 당한다는 얘기라, 그런 문제를 처장께서는 잘 파악해서 가지고 현지인을 기용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경비도 지출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예, 새겨들겠습니다.

○姜申星一委員 현지에 가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잔액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개 문화홍보원의 예산을 가지고 오사카와 캐나다를 포함한 6개 문화홍보원을 운영해야 하는 사정이었고 또 하나는 독일문화홍보원이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 확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공사와 전시

품 보장경비로 한 1억 5,9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외 문화홍보원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했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李美卿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美卿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홍보처의 역할이 국정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린다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문의 예산이 97년에는 100억이었다가 99년에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6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서 정부 정책의 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산의 절대치가 줄어든 상황에서 차선의 선택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매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TV광고나 TV캠페인과의 매체활용도를 비교했을 때에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바로는 TV가 93%로 접촉경로가 높고 신문이 26.8%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국정홍보처가 신문을 이용한 것은 12.9%였다가 99년도에는 25.8%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TV는 거기에 비해서 65.4%로 좀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체활용도에 따른 배분을 달리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시책 광고사업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광고 효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의 기구를 보면 다른 부서에 는 기획실장이 있는데 국정홍보처만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홍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국정홍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柄國 위원님께서 민주공동체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지원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폐지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민단체 사업의 부처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처는 공모절차를 행자부에 앞서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통보해서 중복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동일단체의 2개 부처 이상이 지원할 경우라도 반드시 동일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자부하고 더 많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10억이고 거기는 150억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위임해 가지고 취지에 부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낙선운동에 참여한 단체는 저희 처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 문화홍보물을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가 중복 수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鄭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처 소관 문화홍보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문화와 국가 종합홍보 중심으로 그리고 문화관광부소관 문화홍보는 순수 문화예술 소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가 있고 현재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예산 중복집행 등에 의한 비효율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문화홍보원 사업이 시행될 때 문화관광부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鄭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2개 부처가 가령 그쪽 4개 이쪽 6개의 문화원을 놓고 볼 때 그쪽 4개가 사실 더 큼니다. 비교도 안되게 큰데 어느 쪽으로 가야 옳으냐 할 때 鄭 위원님께서도 저희 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사실 문화홍보도 국가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국정홍보처로 그쪽이 넘어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鄭柄國委員 실질적으로 해외홍보원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鄭柄國委員 해외홍보원이나 문화원이나 마찬가지로 업무이지요?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비슷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연을 따진다면 저희가 훨씬 더 폭넓은……

○鄭柄國委員 LA문화원 같은 경우 세계 각국에 있는 해외홍보원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지요?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LA, 뉴욕, 도쿄, 파리 네 군데가 제일 큼니다.

○鄭柄國委員 그런데 제가 지난 8월 미국 갔다 문화원을 들릴 경우가 있어서 운영실태를 좀 파악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태로는 우리 문화와 국정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화원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했듯이 지금 워싱턴의 경우 이것 왜 그래요?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적고 경상비 포함 1억 남짓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됩니까? 사람만 수두룩하게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8월에 개인적인 일로 갔기 때문에 기관에 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쪽 담당자들이 나와 가지고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업무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오거나 또는 부처 관계자들이 왔을 경우 관광가이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제가 혹평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 문화원장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는 얘기가 예산문제를 얘기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하드웨어만 놔두고 많은 인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정홍보와 또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요구해서 소프트웨어를 채우십시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沈揆喆委員 미국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미국 쪽의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기에는 타 지역보다도 인건비 비중이 특별히 높습니다. 현지 직원 4

명이 따로 있어서 전시, 영문자료 제작번역, 인터넷, 자료배포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1999년도 사업내용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어강좌, 전시회, 역사문화강좌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鄭柄國委員 그것은 문화사업이지 직접적인 국정홍보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가령 영문자료 제작번역은 해당분야의 홍보에……

○鄭柄國委員 해외홍보원이 하는 일을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전시, 강좌…… 전부 다 앉아서 하는 홍보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화원과 차별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외홍보원을 들어갔을 때 한국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다든가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갈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프랑스 문화원이나 독일문화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하고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揆喆委員 우리가 알기에 한국에 미국문화원, 프랑스문화원, 이런 식으로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따로 해외홍보원이라는 이런 기관을 유지하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海外弘報院長 金命植 미국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일본문화원도 있습니다.

○沈揆喆委員 아니, 문화원 형태로 자국 문화를 홍보하고 소개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해외홍보원으로 개칭했잖아요?

○鄭柄國委員 왜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沈揆喆委員 지금 국정홍보처소속도 있고 문화관광부소속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국정홍보처소속은 문화홍보라기보다는 국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고 문화관광부소속의 재외 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지역적으로 다 달라서 그렇지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를 포함한 전체 국가 홍보를 하고 있고……

○鄭範九委員 처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문화관광부에서는 자기 쪽으로 통합하자고 하고 국정홍보처에서는 자기 쪽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기관 이기주의 이전에 과연 해외홍보원이 자기 특성을 명확하게 내세우며 가고 있는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을 타하기 전에 과연 해외홍보원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일단 차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적극 반영하시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예, 감사합니다.

○姜申星一委員 저도 좀 강조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국내홍보는 사실 충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해외홍보인데 지금 해외홍보원이라고 개칭해서 이관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현지에 익숙한 사람들, 저도 현지에 가서 타진해 보니까 현지인을 쓸 수 없는 것이, 일용직 말고는 일정 급여를 주는 사람을 채용할 때 퇴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셔서 현지인을 잘 활용하는 홍보원, 이름 그대로 해외홍보원으로 잘 활용하도록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내홍보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국정홍보처가 안 하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은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홍보에 더 역점을 두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께서 정부시책 광고에 있어서 매체별 활용도를 달리 하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정부광고 효과 제고를 위해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李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서 배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에 기획관리관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고 기획관리관의 설치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준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정홍보기획팀 강화를 위해서 기획관리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처의 입장인 보훈처라든가 법제처 이런 데는 전부 기획관리관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행자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

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내년 2월까지의 인력을 동결하자, 이런 것이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도 설득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鄭柄國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는데요.

제안설명에서 국민 여론의 국정반영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의약분업의 문제인데 엄청난 진통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처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예.

○鄭柄國委員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國政弘報處長 吳弘根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鄭柄國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지금까지 정부 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鄭東采 위원 尹鐵相 위원 鄭範九 위원 鄭柄國 위원 姜成求 위원 鄭鎮碩 위원 高興吉 위원 李美卿 위원 辛基南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 국정홍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 국정홍보처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999년도 국정홍보처 결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국정

홍보의 방향 설정에 관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예산집행 및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南景弼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在昇 예, 하세요.

○南景弼委員 국정홍보처 관련은 아니고요.

국정감사 증인을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19일에 다시 합의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 국회와 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일부 언론이기는 하지만 우리 문광위 여야 간에 합의로 선정한 鄭夢憲 현대회장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언론에 의하면 장기간 일본과 홍콩 등지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또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된 증인이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두해서 성실하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모두가 이 부분을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또한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在昇 존경하는 南景弼 간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은 국회에 나와서 꼭 증언을 해야 되고 또 만부득이 이번 지정한 날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는 100일간이니까 그 정기국회 내에 꼭 나와서 우리가 국정감사에 준하는 그런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간사위원께서 공휴일도 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진전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본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해도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좀더

두 간사위원께서 수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문화관광부 본부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出席委員(19人)

姜成求	姜申星一	高興吉	金一潤
南景弼	朴鍾雄	辛基南	申榮均
沈揆喆	沈載權	尹鐵相	李美卿
鄭東采	鄭範九	鄭柄國	鄭鎮碩
崔龍圭	崔在昇	玄敬大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千浩仙
전문위원	金宗鉉

○政府側參席者

문화관광부

장관	金한길
차관보	李弘錫
기획관리실장	朴文錫
종무실장	金順吉
문화정책국장	吳志哲
예술국장	盧太燮
문화산업국장	林炳秀
관광국장	朴良雨
체육국장	裴鍾信
청소년국장	鄭鎮宇
감사관	李敦淙

문화재청

청장	徐廷培
문화재기획국장	金鍾焱
문화유산국장	李勝奎

국정홍보처

처장	吳弘根
차장	李圭錫
홍보기획국장	吳洙東
국정홍보국장	俞載雄
분석국장	高昇羽

○所屬機關參席者

예술원사무국장	徐成甲
---------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李 康 淑
국립중앙박물관장	池 健 吉
국립국어연구원장	沈 在 箕
국립중앙도서관장	尹 熙 昌
국립중앙극장장	金 明 坤
국립현대미술관장	吳 光 洙
국립국악원장	尹 美 容
국립중앙박물관	金 俊 榮
건립추진기획단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趙 由 典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金 秉 模
해외홍보원	
원	金 命 植
외신협력관	成 彰 基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	高 錫 晚

○傘下團體參席者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공 동 위 원 장	鄭 夢 準
공 동 위 원 장	李 衍 澤
독립기념관장	朴 維 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金 正 鈺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李 鍾 奭
영화진흥위원장	柳 吉 村
예술의전당사장	崔 鐘 律
영상물등급위원장	金 洙 容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尹 亮 重
한국영상자료원이사장	鄭 鴻 澤
한국청소년상담원장	李 惠 星